

Regional Economic Comparison of Northern 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and Major Implications

이슈
페이퍼

2023년 07월 31일

Vol. **02**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

김용덕·김은지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

연구책임자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은지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저자	김용덕, 김은지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NS	www.facebook.com/goyangre
ISBN	979-11-92971-06-3

I	서론	06
II	경기북부 지역경제 현황	06
III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	18
IV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	33
V	요약 및 시사점	41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

요약

□ 연구 목적

-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 및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비교 방법

- 경기북부-남부의 지역경제지표를 인구, 생산, 고용, 투자 4가지 부문에서 비교

□ 현황 비교 결과

- 경기북부-남부의 인구,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의 격차는 크게 나타남

<경기북부-남부 주요 경제지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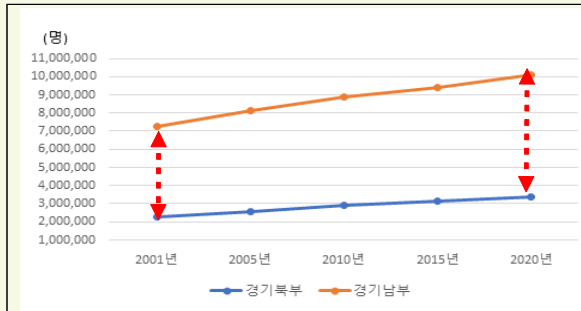
구분		북부(A)	남부(B)	편차(B-A)	A/B
인구	주민등록인구(만명)	349.52	993.18	643.66	0.35
	남녀성비(%)	99.38	101.81	2.43	0.98
	고령화율(%)	14.43	12.20	2.23	1.18
생산	GRDP(조원)	85.7	405.7	320	0.21
	1인당 GRDP(만원)	2,450.5	4,084.3	1,634	0.60
	사업체 수(천개)	237.8	696.6	458.8	0.34
	종사자 수(만명)	115.38	414.89	299.51	0.28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59.1	62.1	3.0	0.95
	고용률(%)	56.7	59.4	2.7	0.95
	실업률(%)	4.0	4.4	0.4	0.91
투자	자본재수입액(억\$)	11.5	313.4	302.0	0.04
	기계류수입액(억\$)	10.4	270.6	260.2	0.04

주. 2020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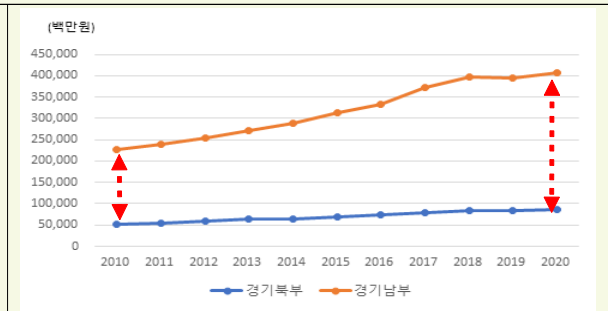
□ 연도별 추이 비교 결과

-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인구, GRDP, 1인당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주요 지역경제 지표 격차는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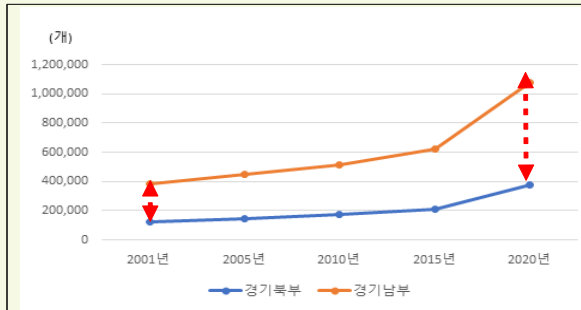
<경기북부남부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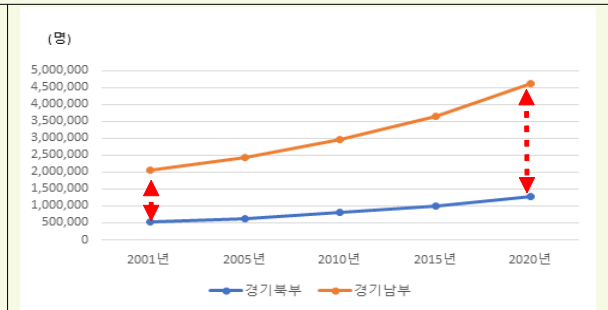
<경기북부남부 GRDP 추이>



<경기북부남부 사업체 수 추이>



<경기북부남부 종사자 수 추이>



자료: 경기통계

□ 주요 시사점

-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경제지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①경기북부-남부 균형발전 ②경기북부 경제·산업 성장 전략을 고려할 필요

구분	주요 내용
① 경기북부-남부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복규제로 발전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북부에 적합한 산업단지 등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행정·재정적 권한 이임 또는 이양 사항 등 경기북부의 선제적 대응
② 경기북부 경제·산업 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벤처투자기관 설립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 필요 -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을 통한 경제발전계획 공동수립 경기북부권 핵심 전략산업 구축 및 산업벨트 조성 등 고려 - 경기북부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 유치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필요

I. 서론

경기도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여러 지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도 커져왔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경기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하지만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 지역경제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추진단 설치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3년 2월, 김민철 의원 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2026년 7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남부에 비해 분단의 피해가 더욱 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의 지역경제 격차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정확한 경제 진단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경기북부 지역경제 현황을, 3장에서는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경제를 비교·분석하고, 5장에서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의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의 일부 지역 경제지표만 비교하는 데 그쳤고,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격차가 줄어든고 있는지 아니면 커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이후 두 지역의 경제를 비교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경기북부 지역경제 현황

경기북부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인구, 생산, 고용, 투자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부문은 주민등록인구, 남녀성비, 고령화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생산부문은 GRDP, 1인당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고용부문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측정하였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자본재 수입액, 기계류 수입액을 측정하였다.

경기도 권역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분류하였다. 경기북부에는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10개 도시가 포함된다. 경기남부에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안양시의 21개 도시가 속한다.

1) 김수연 기자,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화성시 30만명 늘어 증가 1위”, 조선일보, 2023.05.2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21/2U65J2LQBVHFBIIARIN6CSE2M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먼저 경기북부 인구부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구부문

2022년 경기북부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354.8만 명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인구(1,358.9만 명)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추이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2022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고양시 107.65만 명으로 경기북부 전체의 30.4%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주시 20.8%(73.74만 명), 파주시 14.0%(49.53만 명), 의정부시 13.1%(46.37만 명)가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동기간 1.2%(4.21만 명)로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적다. 경기북부 10개 지역 중 주민등록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동두천시(9.15만 명)와 가평군(6.22만 명), 연천군(4.21만 명) 등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추이는 [표 1]과 같다.

[표 1] 경기북부 10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단위: 만 명,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43.18	9.57	95.01	19.64	56.41	35.56	19.67	15.87	4.52	5.89
2011	43.04	9.63	96.12	19.49	57.85	37.88	20.04	15.80	4.49	5.94
2012	42.91	9.72	96.99	19.23	59.95	39.42	20.03	15.76	4.56	6.08
2013	43.10	9.76	99.06	18.97	61.83	40.17	19.91	15.66	4.56	6.10
2014	43.11	9.76	100.62	18.68	63.63	41.13	20.21	15.58	4.54	6.12
2015	43.39	9.80	102.75	18.67	65.35	42.33	20.52	15.52	4.57	6.20
2016	43.85	9.83	103.97	19.38	66.22	43.08	20.55	15.48	4.59	6.24
2017	44.16	9.71	104.20	20.00	66.53	43.78	21.21	15.29	4.54	6.30
2018	44.70	9.62	104.42	20.36	68.18	45.18	21.70	15.07	4.46	6.29
2019	45.19	9.48	106.64	19.93	70.18	45.40	22.23	14.84	4.38	6.24
2020	46.17	9.44	107.92	19.75	71.33	46.56	23.04	14.73	4.35	6.24
2021	46.37	9.36	107.94	19.19	73.38	48.32	23.64	14.89	4.27	6.23
2022	46.37	9.15	107.65	18.87	73.74	49.53	24.34	14.67	4.21	6.22
CAGR (10'22)	0.60%	-0.37%	1.05%	-0.33%	2.26%	2.80%	1.79%	-0.65%	-0.59%	0.45%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또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지역 중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은 의정부(0.60%), 고양(1.05%), 남양주(2.26%), 파주(2.80%), 양주(1.79%), 가평(0.45%) 등이고, 동두천(-0.37%), 구리(-0.33%), 포천(-0.65%), 연천(-0.59%)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10개 지역별 남녀성비는 [표 2]와 같다. 2022년 기준으로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는 남녀성비 100% 미만 지역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은 남녀성비가 100%를 초과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

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지역 남녀성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포천, 연천, 가평은 지난 13년 동안 각각 연평균 0.25%, 0.35%, 0.12% 증가한 반면, 나머지 7개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남녀성비의 편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 지역별 남녀성비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경기북부 10개 지역별 남녀성비

(단위: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98.12	100.35	97.47	99.21	100.56	104.20	104.77	109.18	106.10	105.10
2011	98.00	100.20	97.31	99.27	100.41	104.40	104.13	109.71	106.24	105.53
2012	97.95	100.22	97.10	99.28	100.28	104.08	103.81	109.80	107.16	105.92
2013	97.81	100.23	96.92	99.24	100.14	103.63	103.44	109.81	108.13	105.63
2014	97.63	100.24	96.82	99.26	99.95	103.39	103.13	109.71	108.01	105.18
2015	97.57	99.87	96.70	99.16	99.77	103.18	102.90	109.92	108.74	105.16
2016	97.51	99.56	96.52	98.93	99.67	103.05	102.70	110.42	110.33	105.11
2017	97.43	99.60	96.37	98.65	99.63	103.08	102.72	110.61	110.48	105.13
2018	97.33	99.76	96.25	98.51	99.51	103.10	102.72	110.86	110.18	105.33
2019	97.17	100.03	96.13	98.49	99.33	103.08	102.75	111.24	110.23	105.51
2020	97.11	100.04	95.97	98.43	99.19	103.01	102.91	111.89	110.40	106.04
2021	97.10	99.78	95.81	98.29	99.04	102.89	102.86	112.45	110.44	106.51
2022	96.85	99.56	95.56	98.10	98.77	102.93	102.53	112.49	110.66	106.62
CAGR (10~22)	-0.11%	-0.07%	-0.17%	-0.09%	-0.15%	-0.10%	-0.18%	0.25%	0.35%	0.12%

주 : 남녀성비 = 남성인구 / 여성인구 * 1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경기북부 10개 지역별 고령화율은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28.50%)이며, 가평(28.04%), 포천(21.65%), 동두천(21.86%)과 함께 20% 이상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파주(14.57%)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평균 고령화율은 16.0%이다.

지역별 고령화 진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속도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구리가 5.58%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파주(2.44%), 연천(3.39%), 가평(3.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4%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지역은 평균 5.44%로 최근 들어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 지역별 고령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경기북부 10개 지역별 고령화율

(단위: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9.45	12.66	8.86	7.80	9.07	10.90	10.09	12.54	19.10	18.73
2011	9.90	13.13	9.12	8.14	9.34	10.77	10.36	12.98	19.83	19.23
2012	10.43	13.73	9.46	8.60	9.71	10.90	10.86	13.50	20.33	19.63
2013	10.97	14.39	9.81	9.11	10.07	11.17	11.46	14.08	20.72	20.17
2014	11.49	14.96	10.15	9.60	10.44	11.46	11.97	14.64	21.35	20.75
2015	11.97	15.51	10.50	10.06	10.84	11.72	12.42	15.13	21.79	21.24
2016	12.38	16.04	10.80	10.41	11.24	11.91	12.82	15.50	21.96	21.58
2017	12.86	16.80	11.22	10.82	11.84	12.22	13.35	16.12	22.45	22.14
2018	13.40	17.77	11.79	11.34	12.46	12.59	14.02	17.01	23.26	23.04
2019	13.99	18.69	12.36	12.06	12.95	13.00	14.68	17.99	24.32	24.04
2020	14.73	19.76	13.04	13.03	13.64	13.56	15.37	19.21	25.63	25.36
2021	15.48	20.84	13.86	14.00	14.41	14.07	16.12	20.37	26.98	26.72
2022	16.30	21.86	14.71	14.96	15.18	14.57	16.87	21.65	28.50	28.04
CAGR ('10-'22)	4.65%	4.66%	4.31%	5.58%	4.39%	2.44%	4.38%	4.65%	3.39%	3.42%
CAGR ('20-'22)	5.19%	5.17%	6.19%	7.14%	5.52%	3.66%	4.78%	6.17%	5.46%	5.14%

주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 총 인구 * 1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2. 생산부문

2020년 경기북부의 GRDP는 약 85.65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 GRDP(491.30조 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GRDP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에서 2020년 기준 GRDP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가장 많은 21.76조 원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파주(20.99조 원)와 남양주(12.68조 원)가 뒤따르고 있다. 한편, 연천의 2020년 GRDP는 1.77조 원으로, 경기 북부지역 중 가장 적다. 가평(1.84조 원)과 동두천(1.78조 원)도 GRDP가 2조 원에 미치지 못해, 지역별 GRDP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북부 중 남양주(7.85%), 파주(5.8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동기간 동두천(2.83%)과 구리(3.23%)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기북부 지역별 GRDP 추이는 [표 4]와 같다.

[표 4] 경기북부 지역별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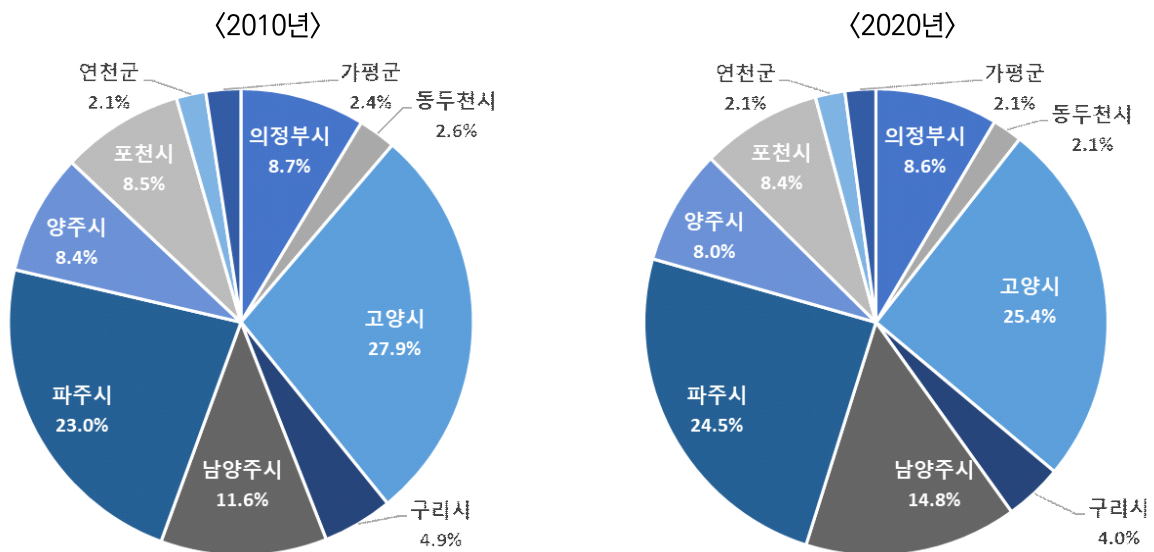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4.47	1.35	14.34	2.51	5.96	11.86	4.32	4.38	1.06	1.25
2011	4.71	1.28	14.52	2.46	6.30	14.07	4.43	4.63	1.08	1.26
2012	5.12	1.44	15.11	2.67	7.47	14.52	4.72	4.96	1.17	1.34
2013	5.29	1.89	16.35	2.77	7.72	16.18	5.09	5.32	1.19	1.28
2014	5.12	1.74	16.04	3.03	7.59	16.04	5.35	5.88	1.23	1.37
2015	5.56	1.87	17.09	3.03	8.40	17.98	5.55	6.16	1.31	1.49
2016	6.22	1.91	18.55	3.26	9.33	18.99	5.98	6.44	1.29	1.60
2017	6.93	1.89	20.12	3.49	10.15	20.97	6.26	6.65	1.31	1.70
2018	7.35	1.77	21.54	3.72	10.97	20.96	6.61	6.71	1.53	1.83
2019	7.47	1.82	21.70	3.60	11.53	20.60	6.76	6.87	1.74	1.81
2020	7.33	1.78	21.76	3.45	12.68	20.99	6.85	7.21	1.77	1.84
CAGR (10'20)	5.08%	2.83%	4.26%	3.23%	7.85%	5.88%	4.72%	5.10%	5.27%	3.90%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별 GRDP 비중은 [그림 1]과 같다. 2020년 기준 고양이가 25.4%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GRDP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주가 24.5%로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 10개 지역 중 고양과 파주가 약 50%의 GRDP를, 나머지 8개 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그림 1]처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 경기북부 지역별 GRDP 비중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한편, 경기북부 지역별 1인당 GRDP는 다음과 같다. [표 5]를 보면, 2020년 기준 1인당 GRDP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인당 4,894만 원을 기록한 포천이며, 그 뒤를 파주(4,508만 원), 연천(4,062만 원)이 따르고 있다. 1인당 GRDP가 가장 적은 지역은 1인당 1,587만 원을 기록한 의정부로, 동두천(1,886만 원), 구리(1,748만 원), 남양주(1,778만 원)와 함께 1인당 GRDP가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양은 2.9%로 가장 낮았다. 반면, 포천은 동기간 5.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동두천은 -0.2%로 감소세를 보였다. 구리(1.5%), 파주(1.2%), 양주(1.9%)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별 1인당 GRDP는 [표 5]와 같다.

[표 5] 경기북부 지역별 1인당 GRDP

(단위: 만 원,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1,034	1,407	1,509	1,279	1,056	3,334	2,194	2,764	2,341	2,126
2011	1,095	1,331	1,511	1,263	1,088	3,714	2,211	2,933	2,414	2,124
2012	1,194	1,484	1,558	1,386	1,246	3,682	2,357	3,146	2,556	2,203
2013	1,227	1,939	1,651	1,462	1,248	4,027	2,556	3,395	2,618	2,099
2014	1,187	1,786	1,594	1,624	1,193	3,900	2,647	3,774	2,707	2,243
2015	1,281	1,909	1,663	1,622	1,286	4,247	2,704	3,972	2,872	2,410
2016	1,418	1,942	1,784	1,680	1,409	4,407	2,908	4,163	2,801	2,565
2017	1,569	1,943	1,931	1,745	1,526	4,789	2,951	4,349	2,887	2,697
2018	1,644	1,838	2,063	1,829	1,610	4,640	3,049	4,450	3,419	2,911
2019	1,654	1,919	2,035	1,806	1,642	4,538	3,041	4,632	3,959	2,907
2020	1,587	1,886	2,016	1,748	1,778	4,508	2,972	4,894	4,062	2,944
CAGR (10~20)	4.4%	3.0%	2.9%	3.2%	5.3%	3.1%	3.1%	5.9%	5.7%	3.3%
CAGR (15~20)	4.4%	-0.2%	3.9%	1.5%	6.7%	1.2%	1.9%	4.3%	7.2%	4.1%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 사업체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9년 경기북부의 사업체 수는 237.78천 개로, 경기도(934.35천 개)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사업체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고양시(69.69천 개)로, 경기북부 사업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양주(39.23천 개, 16.5%), 파주(32.37천 개, 13.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의 사업체 수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4개 지역에 70.6%가 밀집해 있고, 이 밖의 6개 지역에 30%의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사업체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는 [표 6]과 같다.

[표 6] 경기북부 지역별 사업체 수

(단위: 천 개,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23.29	5.89	49.61	11.61	25.59	19.37	13.36	14.40	3.29	5.50
2011	23.69	6.03	51.69	11.92	27.15	21.21	14.64	15.42	3.38	5.67
2012	24.17	6.05	53.93	12.50	28.96	22.40	14.29	15.62	3.47	5.78
2013	24.40	6.01	55.42	12.68	30.34	23.31	14.72	16.05	3.59	5.91
2014	24.89	6.13	59.30	13.25	32.70	24.84	15.57	16.76	3.63	6.28
2015	24.92	6.19	60.87	13.25	34.13	25.97	15.82	17.40	3.58	6.19
2016	25.94	6.20	63.64	13.76	36.23	27.22	16.24	17.87	3.59	6.32
2017	26.32	6.39	66.62	14.20	36.94	28.53	16.95	18.00	3.66	6.48
2018	27.03	6.57	69.26	14.65	38.06	30.37	17.56	18.42	3.66	6.82
2019	26.64	6.66	69.69	14.83	39.23	32.37	18.60	18.99	3.84	6.93
CAGR (10~19)	1.4%	1.2%	3.5%	2.5%	4.4%	5.3%	3.4%	2.8%	1.6%	2.4%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별 종사자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4개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북부 전체의 29%를 차지한 고양(33.48만 명)이며, 그 뒤를 파주(19.27만 명, 16.7%), 남양주(17.49만 명, 15.2%), 의정부(12.21만 명, 10.6%)가 따르고 있다. 이상의 4개 지역이 경기북부 지역 전체 종사자 수의 71.5%를 차지하여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종사자 편중 현상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 지역별 종사자 수 현황 및 추이는 [표 7]과 같다.

[표 7] 경기북부 지역별 종사자 수

(단위: 만 명,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0	9.71	2.35	23.71	5.13	10.56	11.66	6.46	6.97	1.26	2.02
2011	9.90	2.44	24.53	5.14	10.96	13.36	6.73	7.33	1.20	2.08
2012	10.15	2.51	25.27	5.47	11.69	14.17	6.99	7.68	1.28	2.20
2013	10.73	2.57	25.89	5.53	12.60	14.72	7.22	7.97	1.33	2.25
2014	10.78	2.66	27.77	5.70	13.56	15.48	7.74	8.29	1.34	2.36
2015	10.99	2.71	29.09	6.04	14.78	16.56	7.91	8.64	1.36	2.36
2016	11.46	2.73	30.59	6.25	15.43	17.33	8.20	9.10	1.41	2.43
2017	11.74	2.83	31.94	6.46	15.84	18.19	8.45	9.13	1.43	2.60
2018	12.07	2.83	33.29	6.68	16.52	18.73	8.76	9.34	1.50	2.77
2019	12.21	2.94	33.48	6.64	17.49	19.27	9.27	9.71	1.55	2.84
CAGR (10~19)	2.3%	2.2%	3.5%	2.6%	5.2%	5.2%	3.7%	3.4%	2.1%	3.5%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2019년 기준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비중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산업은 대체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별 산업체 비중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은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등 5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 비중은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파주 등 5개 지역이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평(44.5%)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비중은 양주와 포천이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북부의 지역별로 집중된 산업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8] 경기북부 산업별 사업체 비중(2019년)

(단위: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A	0.004	0.02	0.03	0.01	0.05	0.07	0.04	0.18	0.60	0.03
B	0.01	0.00	0.00	0.00	0.01	0.02	0.03	0.09	0.16	0.06
C	4.85	7.57	8.45	5.31	14.46	18.77	23.22	32.43	10.26	4.82
D	0.03	0.11	0.04	0.01	0.03	0.04	0.09	0.05	0.13	0.12
E	0.10	0.45	0.17	0.15	0.17	0.25	0.49	0.65	0.96	0.32
F	2.76	3.18	3.46	3.08	3.51	3.06	3.60	2.96	5.70	4.60
G	23.43	21.72	26.42	28.00	24.49	21.22	21.75	19.56	20.23	16.92
H	10.30	11.44	10.06	12.40	8.62	10.28	9.16	7.60	6.66	3.82
I	20.51	22.85	15.33	17.71	17.09	17.41	15.60	17.71	24.16	44.50
J	0.47	0.32	1.33	0.42	0.32	1.31	0.20	0.25	0.39	0.50
K	1.26	0.77	0.85	1.09	0.44	0.53	0.39	0.49	0.94	0.59
L	4.50	3.48	4.77	4.23	4.87	4.23	3.95	1.79	3.59	2.93
M	2.71	1.16	2.83	2.20	1.77	1.74	1.38	1.34	1.48	1.95
N	1.33	1.31	1.91	1.41	1.32	1.45	1.55	1.26	1.43	1.04
O	0.23	0.45	0.15	0.20	0.14	0.20	0.22	0.32	0.96	0.43
P	5.75	4.07	6.29	5.27	5.45	4.21	3.50	1.92	3.15	2.64
Q	5.16	4.77	3.84	4.18	4.50	3.51	3.41	2.25	3.88	2.77
R	3.91	3.05	3.49	3.25	3.10	3.15	2.67	2.13	3.64	3.84
S	12.68	13.31	10.58	11.08	9.66	8.56	8.78	7.01	11.66	8.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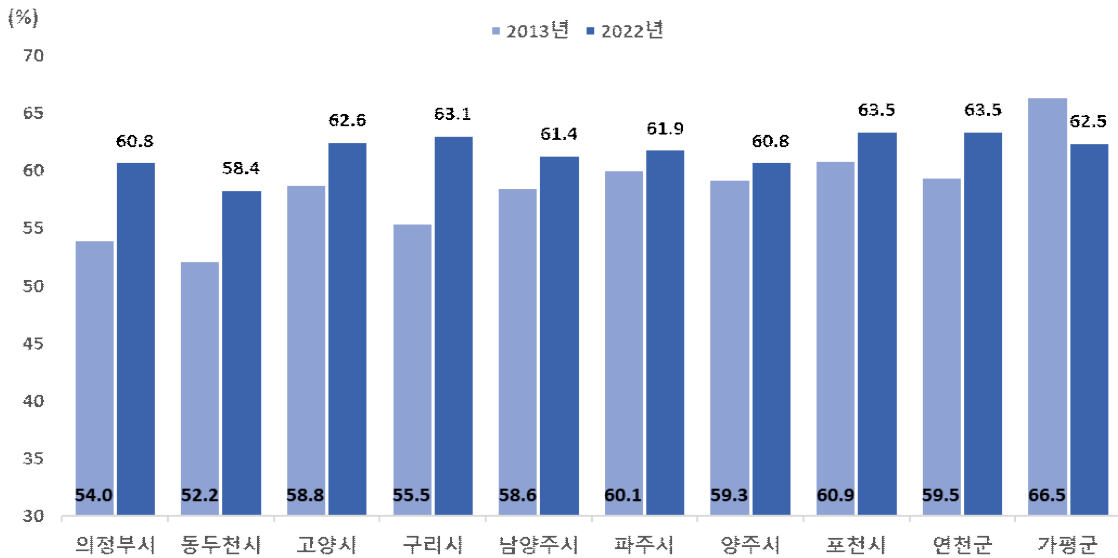
주 :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3. 고용부문

2022년 경기북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경기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인 63.7%보다 다소 낮았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포천과 연천이 63.5%로 가장 높고, 동두천이 58.4%로 가장 낮다. 또한, 2013년과 비교하면, 가평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구리, 의정부, 동두천은 각각 7.6%p, 6.8%p, 6.2%p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인구의 증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세 이상 성인인구가 감소한 연천은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변화없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지역은 15세 이상 성인인구가 증가하였다. 경기북부의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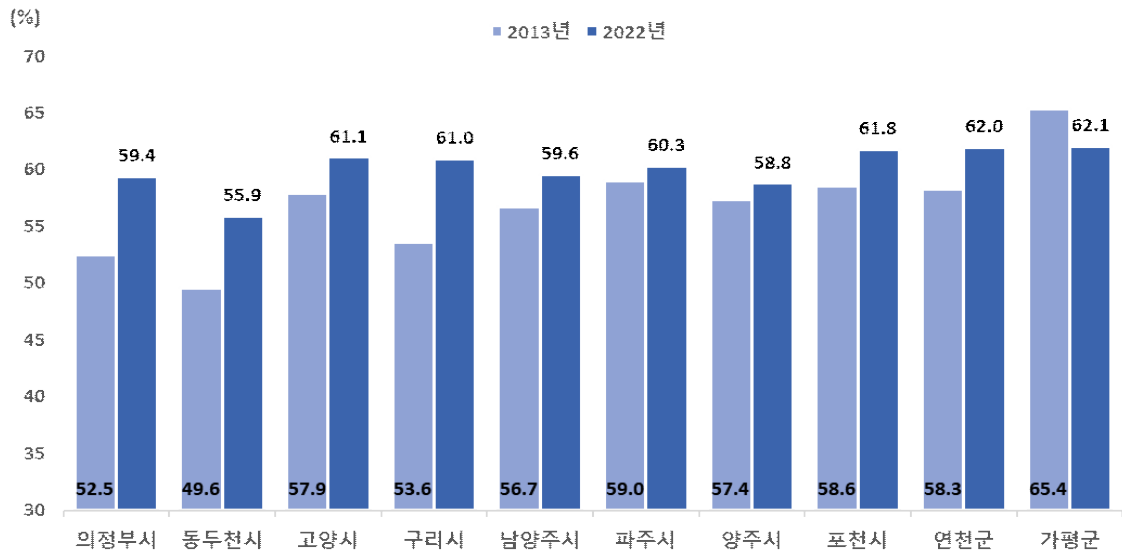
[그림 2] 경기북부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2022년 고용률은 가평이 62.1%로 가장 높고, 동두천이 55.9%로 가장 낮다. 또한, 2013년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가평만이 감소하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 의정부, 동두천 지역은 2013년 대비 각각 7.4%p, 6.9%p, 6.3%p 크게 증가한 반면, 가평은 3.3%p 감소하였다. 이는 성인인구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률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과 달리 가평군은 성인인구 증가(2013년 대비 2022년 7.9% 증가)에 비해 취업자 수(2013년 대비 2022년 2.5% 증가) 증가율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지역별 고용률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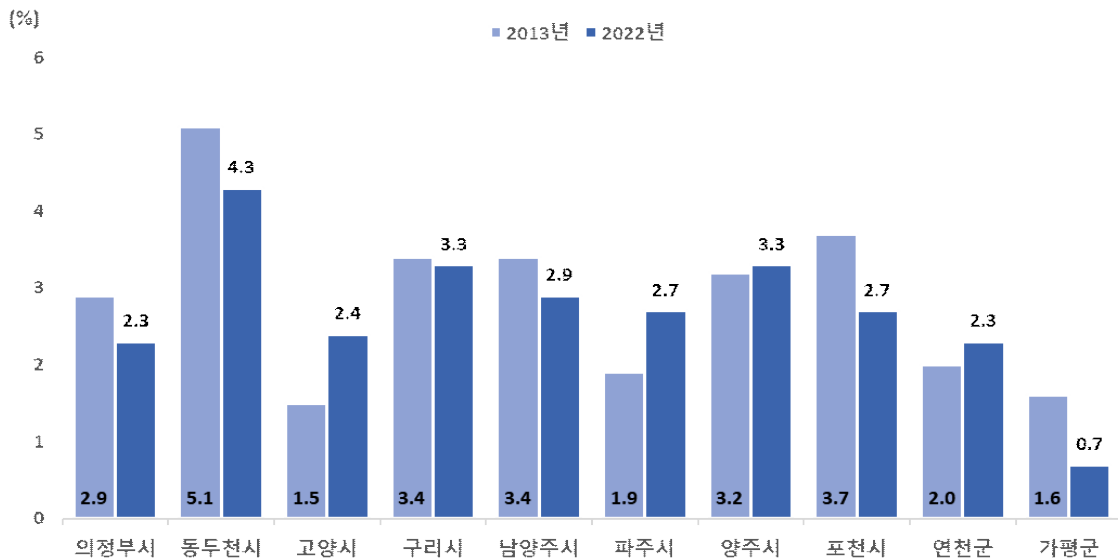
[그림 3] 경기북부 지역별 고용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실업률 현황을 보면, 2022년 실업률은 동두천이 4.3%로 가장 높고, 가평이 0.7%로 가장 낮다. 2013년과 비교하면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등 6개 지역은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고양, 파주, 양주, 연천 등 4개 지역은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 비해 실업률이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은 포천(-1.0%p)이었고, 고양시(0.9%p)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 지역별 실업률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경기북부 지역별 실업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4. 투자부문

2022년 경기북부의 자본재 수입액은 12.9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 자본재 수입액(403.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고양(387.1백만 달러)이, 파주(345.7백만 달러)와 남양주(212.2백만 달러)가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2022년 경기 북부지역 중 자본재 수입액이 가장 적은 곳은 약 4.5백만 달러인 연천으로, 가평(4.7백만 달러)과 더불어 5백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북부지역별 자본재 수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북부의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동두천이 43.8%로 가장 높았고, 연천(-31.8%)과 양주(-12.1%)는 감소하였다. 경기북부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은 [표 9]와 같다.

[표 9] 경기북부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단위: 백만\$,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5	23.1	11.8	73.3	4.2	172.1	242.6	158.1	59.9	66.2	1.1
2016	30.7	7.9	195.9	3.0	180.7	228.9	53.0	49.3	18.8	1.5
2017	24.5	17.3	244.1	4.7	200.7	258.5	65.2	47.5	9.5	2.3
2018	27.8	18.1	296.1	6.4	207.7	269.0	72.1	58.5	15.1	3.1
2019	35.4	47.7	269.0	8.8	188.6	294.4	70.4	54.9	9.5	2.3
2020	40.6	77.0	328.8	10.0	186.0	321.5	107.3	64.9	7.4	2.0
2021	32.9	116.2	402.7	10.8	184.8	411.4	79.4	60.9	5.8	6.2
2022	42.5	149.5	387.1	12.6	212.2	345.7	64.3	71.5	4.5	4.7
CAGR (15~22)	9.1%	43.8%	26.8%	17.0%	3.0%	5.2%	-12.1%	2.6%	-31.8%	22.7%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한편, 2022년 경기북부의 기계류 수입액은 10.5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 기계류 수입액(349.3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기계류 수입액을 기록한 지역은 고양(342.0백만 달러)이며, 남양주(206.8백만 달러)와 파주(269.5백만 달러)까지 3개 지역이 200백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22년 기준 기계류 수입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3.7백만 달러)으로, 가평(5.6백만 달러)과 더불어 6백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여 경기북부의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북부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의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동두천(-6.7%), 포천(-2.9%), 연천(-33.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북부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은 [표 10]과 같다.

[표 10] 경기북부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

(단위: 백만\$,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2015	10.9	52.9	82.9	5.7	111.2	178.1	36.4	100.8	65.3	1.1
2016	11.5	90.8	202.7	7.3	149.1	176.3	33.5	70.9	18.2	1.0
2017	12.0	80.7	223.4	8.6	140.2	202.6	28.2	53.2	6.6	2.2
2018	14.7	117.2	237.9	7.4	153.9	246.2	35.4	88.3	9.5	2.3
2019	12.3	67.0	224.3	8.7	136.5	210.7	36.8	60.0	5.3	1.4
2020	14.8	49.0	287.4	10.5	179.1	341.2	76.6	77.3	3.7	3.7
2021	17.8	88.5	357.7	11.0	192.6	298.8	61.5	64.9	5.0	8.3
2022	35.7	32.5	342.0	10.6	206.8	269.5	65.2	81.8	3.7	5.6
CAGR (15~22)	18.4%	-6.7%	22.4%	9.3%	9.3%	6.1%	8.7%	-2.9%	-33.7%	26.2%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III.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인구, 생산, 고용, 투자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부문은 주민등록인구, 남녀성비, 고령화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생산부문은 GRDP(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고용부문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측정하였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자본재 수입액, 기계류 수입액을 측정하였다.

먼저 경기남부 인구부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구부문

2022년 경기남부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1,004.19만 명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인구(1,358.94만 명)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추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단위: 만 명,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107.75	98.02	62.17	87.52	34.40	41.95	71.49	7.23	18.25	40.38	28.78
2011	108.85	97.93	61.56	87.25	35.52	42.69	71.56	7.20	19.39	40.11	28.73
2012	112.03	97.86	61.14	86.99	35.56	43.43	71.51	7.11	20.03	39.95	28.68
2013	114.82	97.95	60.79	86.37	35.31	44.20	71.37	7.06	20.55	39.68	28.63
2014	117.42	97.46	60.08	85.56	34.86	44.96	70.79	7.02	20.86	39.46	28.84
2015	118.46	97.14	59.78	84.90	34.50	46.05	69.79	6.89	20.68	39.83	28.75
2016	119.40	97.46	59.74	85.14	33.95	47.08	68.99	6.38	20.87	40.29	28.49
2017	120.26	96.75	58.78	85.03	33.28	48.15	67.77	5.75	21.34	41.97	28.12
2018	120.12	95.43	57.68	84.38	32.68	49.56	66.03	5.81	22.01	44.87	27.69
2019	119.45	94.27	56.70	83.00	31.66	51.30	65.09	5.83	22.64	47.37	27.59
2020	118.61	94.01	55.00	81.84	29.86	53.73	65.49	6.32	22.97	50.09	27.38
2021	118.37	93.09	54.72	80.61	29.29	56.43	65.27	7.33	23.00	51.20	26.85
2022	119.10	92.25	54.82	79.01	28.79	57.85	64.17	7.81	22.98	51.29	26.62
CAGR (10'22)	0.8%	-0.5%	-1.0%	-0.8%	-1.5%	2.7%	-0.9%	0.7%	1.9%	2.0%	-0.6%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14.74	15.05	87.66	20.26	17.79	23.83	50.58	24.98	10.93	9.58	
2011	14.96	14.84	89.60	20.46	18.07	25.70	51.68	26.52	10.91	9.94	
2012	15.48	14.63	91.60	20.49	18.16	28.74	52.55	27.57	10.96	10.22	
2013	15.98	14.51	94.15	20.55	18.22	31.23	53.03	28.67	10.93	10.36	
2014	15.85	14.89	96.10	20.50	18.19	34.03	54.09	29.89	11.04	10.54	
2015	15.77	16.67	97.57	20.49	18.02	35.00	59.65	31.26	11.10	10.83	
2016	15.68	21.11	99.11	21.04	18.29	36.34	64.09	32.77	11.16	11.14	
2017	15.58	23.25	100.41	21.31	18.28	39.21	69.11	34.59	11.20	11.51	
2018	15.39	25.44	103.51	21.42	18.36	42.32	75.87	36.38	11.15	11.61	
2019	16.12	27.25	105.96	21.58	18.34	43.72	81.54	37.27	11.11	11.69	
2020	16.38	29.35	107.42	21.84	18.70	47.40	85.52	38.21	11.19	11.88	
2021	16.34	32.01	107.75	22.32	18.95	48.65	88.70	38.73	11.22	12.12	
2022	16.02	32.61	107.50	22.27	18.88	48.43	91.08	39.15	11.32	12.23	
CAGR (10'22)	0.7%	6.7%	1.7%	0.8%	0.5%	6.1%	5.0%	3.8%	0.3%	2.1%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표 11]을 보면, 2022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수원이 119.10만 명으로 경기남부 주민등록인구에서 가장 높은 11.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용인 10.7%(107.50만 명), 성남 9.2%(92.25만 명), 화성 9.1%(91.08만 명) 순이다. 한편, 과천은 동기간 0.8%(7.81만 명)로, 유일하게 주민등록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중 성남(-0.5%), 안양(-1.0%), 부천(-0.8%), 광명(-1.5%), 안산(-0.9%), 군포(-0.6%) 등 6개 지역은 감소한 반면,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남부 지역별 남녀성비는 [표 12]와 같다.

[표 12]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남녀성비

(단위: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101.24	99.45	99.60	100.57	98.89	103.20	104.82	96.29	104.12	109.47	99.62
2011	101.27	99.31	99.47	100.46	98.71	103.50	104.71	95.95	104.02	109.47	99.24
2012	101.14	99.30	99.40	100.26	98.45	103.78	104.53	95.39	104.26	109.44	99.02
2013	101.08	99.21	99.25	100.06	98.21	103.95	104.48	95.00	104.51	109.63	98.91
2014	101.14	99.00	99.09	99.94	98.17	104.15	104.57	94.94	104.72	109.77	98.86
2015	101.18	98.73	98.92	99.73	98.30	104.38	104.64	94.84	104.83	109.77	98.77
2016	101.16	98.38	98.74	99.49	98.31	104.64	104.55	94.83	104.98	109.86	98.72
2017	101.23	98.09	98.54	99.29	98.19	105.21	104.64	95.33	105.26	109.74	98.63
2018	101.28	97.96	98.25	99.07	98.06	105.80	104.83	95.95	105.62	109.49	98.55
2019	101.24	97.92	97.98	98.77	97.79	106.34	104.83	96.56	106.24	109.34	98.45
2020	101.24	97.94	97.79	98.46	97.51	107.10	104.86	97.04	106.81	109.23	98.36
2021	101.24	98.01	97.68	98.21	97.26	108.26	104.91	97.07	107.42	109.13	98.39
2022	101.24	98.01	97.59	97.97	96.94	109.58	104.91	96.94	108.13	109.07	98.44
CAGR ('10~'22)	0.0%	-0.1%	-0.2%	-0.2%	-0.2%	0.5%	0.01%	0.1%	0.3%	-0.03%	-0.1%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101.17	104.73	98.97	102.59	103.91	103.02	106.29	106.05	101.79	102.48	
2011	100.72	104.41	98.84	102.55	103.97	102.82	106.30	105.94	102.05	102.06	
2012	100.28	104.12	98.73	102.62	103.99	102.33	106.44	105.67	102.06	101.72	
2013	100.07	104.04	98.67	102.79	104.00	101.69	106.53	105.70	101.94	101.66	
2014	99.92	103.92	98.67	102.86	104.00	101.15	106.66	105.83	101.91	101.95	
2015	99.79	103.40	98.63	102.97	103.95	100.91	106.64	105.67	102.16	102.17	
2016	99.73	102.32	98.60	103.31	104.07	100.86	106.56	105.49	102.36	102.22	
2017	99.69	101.41	98.66	103.91	104.50	100.78	106.78	105.39	102.30	101.95	
2018	99.62	101.10	98.66	104.79	104.96	100.72	107.12	105.08	102.41	101.49	
2019	99.54	101.11	98.57	105.81	105.37	100.78	107.34	104.85	102.87	101.11	
2020	99.21	101.08	98.46	106.71	105.94	100.62	107.62	104.67	103.18	100.81	
2021	98.83	100.57	98.40	107.38	106.50	100.26	107.92	104.35	103.27	100.78	
2022	98.47	99.90	98.41	108.04	106.77	99.94	108.10	104.11	103.39	100.97	
CAGR ('10~'22)	-0.2%	-0.4%	-0.1%	0.4%	0.2%	-0.3%	0.1%	-0.2%	0.1%	-0.1%	

주 : 남녀성비 = 남성인구 / 여성인구 * 1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남녀성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수원, 평택, 안산, 오산, 시흥 등 11개 지역은 남녀성비가 100% 이상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적다. 반면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10개 지역은 남녀성비가 100% 미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3년 동안 경기남부 21개 지역 남녀성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택(0.5%), 안산(0.01%), 과천(0.1%), 오산(0.3%), 이천(0.4%), 안성(0.2%), 화성(0.1%), 여주(0.1%) 등 8개 지역은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감소하여 지역별 남녀성비의 편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고령화율을 보면,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평(27.36%)으로, 여주(23.59%)와 더불어 20% 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면,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9.55%)이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평균 고령화율은 13.6%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지역별 고령화율은 [표

13]과 같다.

[표 13]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고령화율

(단위: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6.80	8.35	7.69	7.13	8.10	9.89	6.26	9.04	6.06	6.09	7.57
2011	7.06	8.68	8.00	7.43	8.17	10.10	6.50	9.39	6.25	6.28	7.81
2012	7.34	9.12	8.38	7.86	8.49	10.33	6.77	9.85	6.45	6.53	8.17
2013	7.62	9.63	8.81	8.37	8.94	10.57	7.08	10.32	6.67	6.84	8.55
2014	7.88	10.13	9.26	8.87	9.40	10.78	7.42	10.71	6.91	7.15	8.91
2015	8.19	10.61	9.71	9.39	9.92	10.97	7.78	11.13	7.21	7.44	9.31
2016	8.52	11.01	10.10	9.87	10.42	11.08	8.12	11.66	7.52	7.71	9.74
2017	8.95	11.49	10.59	10.45	11.03	11.28	8.57	12.39	7.87	8.03	10.34
2018	9.47	12.15	11.29	11.17	11.74	11.54	9.16	13.02	8.25	8.28	11.05
2019	10.00	12.84	12.10	12.00	12.50	11.75	9.83	13.44	8.66	8.54	11.78
2020	10.68	13.63	13.09	13.04	13.36	12.03	10.55	13.85	9.23	9.02	12.70
2021	11.40	14.42	14.05	14.16	14.23	12.27	11.30	14.03	9.90	9.62	13.73
2022	12.04	15.25	14.93	15.31	15.15	12.53	12.19	14.14	10.62	10.30	14.77
CAGR (10~22)	4.9%	5.1%	5.7%	6.6%	5.4%	2.0%	5.7%	3.8%	4.8%	4.5%	5.7%
CAGR (20~22)	6.2%	5.8%	6.8%	8.3%	6.5%	2.0%	7.5%	1.0%	7.2%	6.8%	7.8%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8.12	9.15	8.51	10.11	12.38	10.03	7.58	8.85	14.86	18.41	
2011	8.34	9.56	8.83	10.31	12.50	10.20	7.66	9.01	15.26	18.65	
2012	8.65	10.05	9.28	10.62	12.82	10.24	7.85	9.29	15.76	19.08	
2013	9.00	10.70	9.70	10.98	13.21	10.31	8.09	9.66	16.36	19.62	
2014	9.49	11.29	10.05	11.37	13.55	10.44	8.35	9.99	16.78	20.15	
2015	10.04	11.50	10.44	11.78	14.03	10.67	8.35	10.32	17.09	20.65	
2016	10.52	11.17	10.81	11.99	14.44	10.99	8.24	10.59	17.48	21.03	
2017	11.18	11.20	11.29	12.30	14.96	11.25	8.30	11.01	18.23	21.68	
2018	11.99	11.64	11.84	12.80	15.67	11.40	8.35	11.53	19.21	22.67	
2019	12.62	12.04	12.33	13.25	16.35	11.69	8.42	12.08	20.18	23.72	
2020	13.19	12.49	12.95	13.85	17.14	12.08	8.68	12.87	21.27	24.99	
2021	13.99	12.84	13.61	14.50	17.91	12.56	9.08	13.81	22.44	26.19	
2022	15.01	13.32	14.27	15.21	18.75	13.34	9.55	14.74	23.59	27.36	
CAGR (10~22)	5.3%	3.2%	4.4%	3.5%	3.5%	2.4%	1.9%	4.3%	3.9%	3.4%	
CAGR (20~22)	6.7%	3.3%	5.0%	4.8%	4.6%	5.1%	4.9%	7.0%	5.3%	4.6%	

주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 총 인구 * 1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경기남부 지역도 경기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연평균 고령화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천이 6.6%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평택(2.0%), 과천(3.8%), 하남(3.2%), 김포(2.4%), 화성(1.9%), 여주(3.9%), 양평(3.4%), 용인(4.4%), 광주(4.3%) 등 9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은 경기남부의 연평균 증가율인 4.5% 이상을 기록하

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지역은 평균 5.7%를 보이고 있으며, 과천(1.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산부문

2020년 경기남부의 GRDP는 약 405.65조 원으로, 경기도 GRDP(491.30조 원)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GRDP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0년 기준 경기남부의 GRDP는 화성이 가장 많은 81.88조 원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성남(46.78조 원), 용인(33.33조 원), 수원(33.04조 원)이 따르고 있다. 한편, 양평의 2020년 GRDP는 2.10조 원으로, 경기 남부지역 중 가장 낮으며, 과천(4.34조 원), 의왕(3.97조 원), 여주(4.28조 원)와 함께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경기남부 지역별 GRDP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남부 지역별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화성(12.4%), 하남(10.7%) 등이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과천(-2.2%)은 오히려 GR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GRDP 현황 및 추이는 [표 14]와 같다.

[표 14]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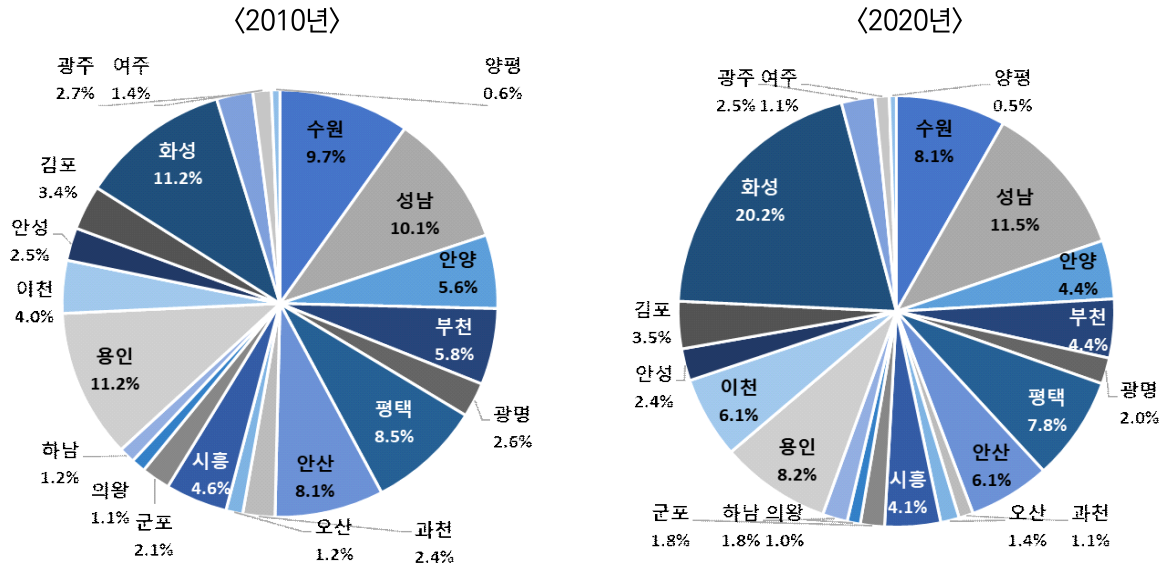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22.05	22.91	12.66	13.10	5.95	19.33	18.35	5.42	2.83	10.48	4.88
2011	23.14	24.78	12.95	13.61	5.77	20.44	20.07	5.33	3.15	11.10	4.89
2012	25.68	26.76	13.59	14.04	6.86	21.48	20.84	5.21	3.36	11.62	5.22
2013	27.18	30.13	14.73	14.82	6.71	22.98	22.69	3.53	3.57	12.20	5.52
2014	28.86	33.50	14.84	14.91	6.43	23.94	22.94	4.32	4.01	12.87	5.72
2015	30.96	37.69	15.53	15.83	7.01	24.54	23.71	4.38	4.48	13.92	6.09
2016	31.80	39.56	16.24	16.51	7.37	26.50	24.37	4.73	4.89	14.93	6.69
2017	33.95	40.98	17.27	16.96	7.57	30.87	26.39	4.70	5.41	15.94	7.26
2018	35.44	42.31	18.14	17.46	8.12	33.79	26.11	4.78	5.65	16.21	7.49
2019	36.62	44.09	18.95	17.56	7.76	32.02	25.77	4.78	5.72	16.20	7.54
2020	33.04	46.78	17.83	17.88	7.96	31.58	24.58	4.34	5.59	16.76	7.25
CAGR (10~20)	4.1%	7.4%	3.5%	3.2%	2.9%	5.0%	3.0%	-2.2%	7.0%	4.8%	4.1%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2.43	2.71	25.52	9.07	5.63	7.67	25.40	6.11	3.13	1.41	
2011	2.68	2.71	24.68	9.28	6.24	8.44	27.76	6.39	3.26	1.39	
2012	2.44	2.97	26.79	9.93	6.31	8.58	30.20	6.38	3.22	1.40	
2013	2.48	3.28	27.45	11.30	6.82	8.81	33.76	7.55	3.27	1.51	
2014	2.65	3.94	28.89	12.35	7.14	9.40	39.35	7.39	3.34	1.53	
2015	3.05	4.83	28.67	14.42	7.77	10.29	47.55	7.84	3.39	1.61	
2016	2.98	5.18	30.79	14.53	8.11	11.42	52.93	8.96	3.60	1.78	
2017	3.49	5.60	33.43	18.08	8.89	12.27	68.09	9.40	3.56	1.84	
2018	3.82	6.49	30.52	24.58	9.36	13.30	77.73	9.66	3.88	1.97	
2019	4.03	6.92	30.18	21.55	9.41	13.97	74.53	9.77	4.12	2.03	
2020	3.97	7.50	33.33	24.78	9.76	14.37	81.88	10.08	4.28	2.10	
CAGR (10~20)	5.1%	10.7%	2.7%	10.6%	5.7%	6.5%	12.4%	5.1%	3.2%	4.0%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경기남부 지역별 GRDP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GRDP 비중은 화성이 20.2%로 가장 높았고, 성남이 11.5%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 21개 지역 중 화성과 성남이 각각 10% 이상의 높은 GRDP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원(8.1%), 평택(7.8%), 안산(6.1%), 용인(8.2%), 이천(6.1%)까지 7개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5% 미만의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지역별 GRDP 비중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경기남부 지역별 GRDP 비중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다음으로, 경기남부 지역별 1인당 GRDP를 보면, 2020년 기준 1인당 GRDP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천으로, 1인당 11,347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화성(9,574만 원), 과천(6,861만 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GRDP가 가장 적은 양평은 1,767만 원을 기록하여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과천(-0.9%)과 김포(-0.6%)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는 9.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시흥(-0.4%), 하남(-1.2%)이 감소세를 보였고, 양평, 과천, 김포까지 5개 지역을 제외한 16개 지역이 10년간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남부 지역별 1인당 GRDP는 [표 15]와 같다.

[표 15]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1인당 GRDP

(단위: 만 원,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2,046	2,337	2,036	1,496	1,731	4,607	2,567	7,498	1,550	2,595	1,694
2011	2,126	2,531	2,103	1,560	1,626	4,788	2,804	7,411	1,623	2,768	1,703
2012	2,292	2,735	2,223	1,614	1,929	4,947	2,914	7,331	1,679	2,910	1,820
2013	2,367	3,076	2,424	1,716	1,901	5,199	3,180	5,002	1,736	3,075	1,927
2014	2,458	3,437	2,471	1,743	1,846	5,325	3,241	6,161	1,923	3,260	1,985
2015	2,614	3,880	2,597	1,865	2,033	5,328	3,397	6,351	2,164	3,494	2,118
2016	2,663	4,059	2,719	1,940	2,170	5,629	3,533	7,421	2,342	3,706	2,347
2017	2,823	4,236	2,939	1,994	2,275	6,411	3,895	8,173	2,533	3,799	2,581
2018	2,951	4,433	3,144	2,070	2,483	6,818	3,954	8,227	2,567	3,613	2,704
2019	3,066	4,676	3,343	2,116	2,450	6,242	3,959	8,202	2,527	3,420	2,732
2020	2,786	4,977	3,241	2,185	2,666	5,878	3,753	6,861	2,432	3,346	2,649
CAGR (10~20)	3.1%	7.9%	4.8%	3.9%	4.4%	2.5%	3.9%	-0.9%	4.6%	2.6%	4.6%
CAGR (15~20)	0.6%	2.5%	2.2%	1.6%	2.8%	1.0%	1.0%	0.8%	1.2%	-0.4%	2.3%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1,646	1,802	2,912	4,476	3,164	3,217	5,022	2,447	2,867	1,477	
2011	1,793	1,829	2,755	4,538	3,452	3,285	5,371	2,408	2,990	1,398	
2012	1,580	2,031	2,925	4,845	3,472	2,987	5,747	2,314	2,944	1,369	
2013	1,552	2,259	2,916	5,501	3,744	2,821	6,368	2,634	2,987	1,453	
2014	1,671	2,644	3,006	6,022	3,927	2,763	7,275	2,473	3,028	1,451	
2015	1,932	2,896	2,938	7,036	4,314	2,940	7,970	2,509	3,051	1,482	
2016	1,900	2,453	3,107	6,908	4,434	3,142	8,259	2,735	3,225	1,597	
2017	2,239	2,410	3,329	8,484	4,865	3,130	9,852	2,716	3,177	1,597	
2018	2,484	2,552	2,948	11,475	5,101	3,142	10,245	2,655	3,480	1,698	
2019	2,498	2,540	2,848	9,986	5,128	3,195	9,141	2,621	3,711	1,736	
2020	2,425	2,557	3,103	11,347	5,218	3,032	9,574	2,639	3,825	1,767	
CAGR (10~20)	4.0%	3.6%	0.6%	9.7%	5.1%	-0.6%	6.7%	0.8%	2.9%	1.8%	
CAGR (15~20)	2.3%	-1.2%	0.5%	4.9%	1.9%	0.3%	1.8%	0.5%	2.3%	1.8%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다음으로, 2019년 경기남부 지역의 사업체 수는 696.57천 개로, 경기도(934.35천 개) 전체의 74.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사업체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수원(74.02천 개)으로, 경기 남부지역 사업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화성(66.77천 개, 9.6%), 성남(66.33천 개, 9.5%)이 따르고 있다. 이 밖에 광명(2.7%), 과천(0.5%), 오산(1.9%), 의왕(1.3%), 하남(2.4%), 이천(2.4%), 안성(2.3%), 광주(4.0%), 여주(1.3%), 양평(1.2%) 등 10개 지역은 각 비중이 경기남부 전체 평균인 4.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는 [표 16]과 같다.

[표 16]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사업체 수

(단위: 천 개,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57.84	50.92	40.74	54.77	16.44	27.70	45.28	3.41	9.18	31.80	14.57
2011	61.43	54.00	41.65	56.19	16.92	28.85	47.24	3.50	9.73	33.63	14.93
2012	63.87	56.44	43.92	57.51	17.88	29.65	48.53	3.54	10.20	36.07	15.51
2013	65.26	57.94	44.80	57.90	18.06	30.41	49.76	3.69	10.73	35.84	15.76
2014	67.14	60.84	44.51	59.15	18.42	31.99	51.95	3.69	11.10	37.48	15.99
2015	68.33	62.47	43.62	59.22	18.30	32.93	52.09	3.66	11.28	38.20	16.21
2016	70.00	63.97	44.77	59.83	18.68	34.00	53.13	3.74	11.67	38.84	17.13
2017	71.90	64.19	44.81	60.08	19.11	34.73	53.40	3.63	12.36	39.81	17.29
2018	73.44	65.51	44.82	60.41	18.99	36.13	54.19	3.68	13.05	41.47	17.74
2019	74.02	66.33	45.38	61.15	18.58	37.54	54.20	3.70	13.17	43.36	17.97
CAGR (10~19)	2.5%	2.7%	1.1%	1.1%	1.2%	3.1%	1.8%	0.8%	3.7%	3.1%	2.1%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6.71	10.16	35.80	12.73	11.55	18.58	34.96	18.45	7.31	6.24	
2011	6.98	10.29	37.90	13.19	12.67	19.50	38.27	19.30	7.49	6.44	
2012	7.36	10.84	39.93	13.56	13.04	20.38	41.26	20.58	7.37	6.53	
2013	7.47	10.98	42.27	14.42	13.48	21.94	44.10	21.60	7.67	6.75	
2014	7.98	11.75	45.39	14.87	13.90	24.20	48.32	23.14	8.01	7.11	
2015	8.14	12.08	46.61	15.33	13.72	25.75	51.95	24.36	8.20	7.21	
2016	8.50	13.15	48.11	15.67	13.96	27.25	54.75	25.60	8.35	8.07	
2017	8.60	13.85	49.64	16.24	14.44	28.79	58.19	26.60	8.68	7.85	
2018	8.96	15.33	52.72	16.76	14.98	31.39	62.50	27.42	9.08	8.08	
2019	9.20	16.60	55.83	16.79	15.88	34.27	66.77	28.20	9.29	8.36	
CAGR (10~19)	3.2%	5.0%	4.5%	2.8%	3.2%	6.3%	6.7%	4.3%	2.4%	3.0%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다음으로,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종사자 수를 보면, 종사자 수 역시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화성, 수원, 성남 3개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화성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49.20만 명으로, 경기남부 전체 종사자 수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성남(46.76만 명, 11.3%), 수원(43.86만 명, 10.6%)이 잇고 있다. 이상 3개 지역은 경기남부에서 각각 10% 이상의 종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안양(6.3%), 이천(7.2%), 평택(5.7%), 안산(7.7%), 시흥(5.1%), 용인(8.5%) 등 9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종사자 비중은 경기남부 평균인 4.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지역별 종사자 수는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7] 경기남부 지역별 종사자 수

(단위: 만 명,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0	34.28	31.07	21.43	25.79	7.31	16.44	26.98	3.47	4.31	15.73	8.85
2011	36.28	33.10	21.60	26.05	7.38	17.39	28.22	3.50	4.57	16.62	8.96
2012	34.46	34.97	22.00	26.83	8.04	17.96	29.58	3.13	4.84	17.63	8.93
2013	38.21	38.30	23.03	27.05	8.24	18.93	30.43	3.13	5.42	17.43	9.41
2014	39.41	40.15	23.51	27.55	8.58	19.58	31.41	3.14	5.67	18.50	9.66
2015	40.46	42.46	23.70	28.10	8.61	20.36	31.38	3.30	5.89	19.10	9.66
2016	41.18	43.41	24.67	28.56	8.97	20.77	31.90	3.40	6.17	19.08	10.08
2017	42.36	44.88	25.11	29.18	9.20	21.50	31.92	3.48	6.44	19.57	10.31
2018	44.95	46.21	25.54	30.10	9.46	22.51	32.16	3.48	6.85	20.26	10.85
2019	43.86	46.76	26.15	29.76	9.39	23.44	32.02	3.48	7.20	21.02	11.05
CAGR (10~19)	2.5%	4.2%	2.0%	1.4%	2.5%	3.6%	1.7%	0.0%	5.3%	2.9%	2.3%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0	3.78	5.01	23.83	8.26	7.48	10.04	26.62	9.62	3.44	2.25	
2011	3.91	5.04	24.18	8.66	8.20	10.35	28.75	9.65	3.62	2.32	
2012	3.99	5.13	24.85	9.01	8.20	10.86	30.62	10.28	3.44	2.34	
2013	4.18	5.44	26.61	9.67	8.48	11.74	32.68	10.57	3.69	2.48	
2014	4.29	5.62	28.77	9.94	8.65	12.94	36.23	11.59	3.76	2.53	
2015	4.61	5.87	29.99	10.06	8.79	13.91	39.52	12.16	3.95	2.71	
2016	4.84	6.49	30.81	10.83	9.07	14.68	40.55	12.97	4.04	2.86	
2017	5.06	6.86	31.41	11.48	9.29	15.33	43.00	13.35	4.21	2.84	
2018	5.49	7.62	33.75	12.16	9.83	16.53	46.04	13.80	4.39	2.96	
2019	5.51	8.43	35.10	12.60	10.09	17.62	49.20	14.16	4.75	3.28	
CAGR (10~19)	3.8%	5.3%	3.9%	4.3%	3.0%	5.8%	6.3%	3.9%	3.3%	3.8%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마지막으로, 2019년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남부는 대체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별 사업체 비중을 2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업종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은 시흥, 김포, 화성, 광주 등 4개 지역이 2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은 오산과 의왕이 1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택, 오산, 여주, 양평이 2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모든 지역에서 비중이 높았다. 한편, 경기북부와 달리 경기남부에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남부의 산업별 사업체 비중은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8] 경기남부지역 산업별 사업체 비중(2019년)

(단위: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A	0.01	0.01	0.004	0	0	0.15	0.03	0.08	0.02	0.01	0.01
B	0	0	0.01	0	0	0.02	0.01	0	0	0	0
C	5.21	6.28	8.55	16.73	9.04	10.25	16.80	2.06	6.68	27.65	16.90
D	0.02	0.10	0.03	0.01	0.02	0.05	0.03	0.03	0.02	0.02	0.03
E	0.11	0.11	0.13	0.09	0.14	0.38	0.29	0.38	0.27	0.23	0.23
F	3.39	3.24	4.18	3.03	3.19	3.60	3.43	3.71	3.20	2.59	3.43
G	22.82	24.31	25.46	21.93	25.33	22.30	21.18	36.19	20.38	21.92	18.73
H	10.25	9.43	10.01	9.62	12.57	10.48	12.02	7.90	15.71	10.03	11.62
I	19.44	17.23	15.60	16.53	15.74	20.89	17.38	14.20	20.61	14.42	15.32
J	0.87	2.63	1.90	0.77	0.52	0.27	0.40	1.16	0.32	0.29	0.77
K	1.14	1.08	1.22	0.98	0.72	0.82	0.93	0.92	0.63	0.42	0.54
L	5.10	5.56	4.89	4.36	5.04	5.29	3.64	6.14	3.81	3.72	4.45
M	3.43	4.14	4.83	2.25	1.72	1.94	2.21	3.68	1.59	1.41	2.65
N	2.05	1.80	1.68	1.43	1.25	2.13	1.80	1.57	2.61	1.12	1.59
O	0.19	0.19	0.16	0.14	0.24	0.23	0.17	0.87	0.18	0.12	0.16
P	6.15	6.24	5.38	4.42	6.47	4.15	3.75	6.41	4.97	3.53	5.99
Q	4.46	4.36	3.61	3.62	4.68	3.32	3.12	4.17	4.59	2.79	4.36
R	3.86	3.36	3.03	3.46	2.86	3.23	3.50	2.35	4.01	2.88	3.18
S	11.49	9.94	9.32	10.64	10.47	10.51	9.30	8.20	10.40	6.86	10.0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A	0.02	0.02	0.06	0.37	0.56	0.07	0.06	0.09	0.30	0.24	
B	0	0	0.02	0	0.03	0.003	0.02	0.004	0.06	0	
C	11.90	9.43	8.03	11.65	17.67	28.21	29.27	22.85	12.44	5.17	
D	0.02	0.03	0.04	0.05	0.04	0.04	0.04	0.05	0.02	0.08	
E	0.28	0.19	0.19	0.32	0.48	0.42	0.48	0.21	0.37	0.30	
F	3.75	3.90	3.15	3.62	3.56	2.57	3.20	3.69	3.88	5.52	
G	20.38	33.31	22.31	22.20	20.39	20.47	18.67	22.22	23.13	19.60	
H	16.00	8.86	10.89	10.55	10.59	7.74	8.26	12.44	9.57	6.78	
I	14.68	13.97	17.13	19.62	19.30	13.67	14.34	13.71	20.71	29.49	
J	1.15	0.96	0.99	0.36	0.23	0.43	0.38	0.22	0.27	0.60	
K	0.46	0.46	0.66	0.78	0.63	0.52	0.48	0.34	0.70	0.68	
L	5.36	5.37	6.82	4.03	3.02	5.40	4.83	3.84	3.39	6.10	
M	2.76	2.16	2.98	1.93	1.66	1.60	2.07	1.80	1.79	2.13	
N	1.34	1.72	1.58	2.32	2.07	1.39	1.30	1.31	2.07	1.22	
O	0.29	0.20	0.18	0.39	0.38	0.15	0.13	0.15	0.64	0.60	
P	5.01	4.27	7.43	4.73	3.86	4.46	4.49	3.32	3.59	4.46	
Q	4.24	3.99	4.52	3.35	3.42	3.19	3.04	2.96	3.61	3.91	
R	3.05	2.60	3.36	3.24	3.08	2.42	2.37	2.64	3.34	3.15	
S	9.31	8.54	9.67	10.49	9.04	7.26	6.58	8.16	10.14	9.9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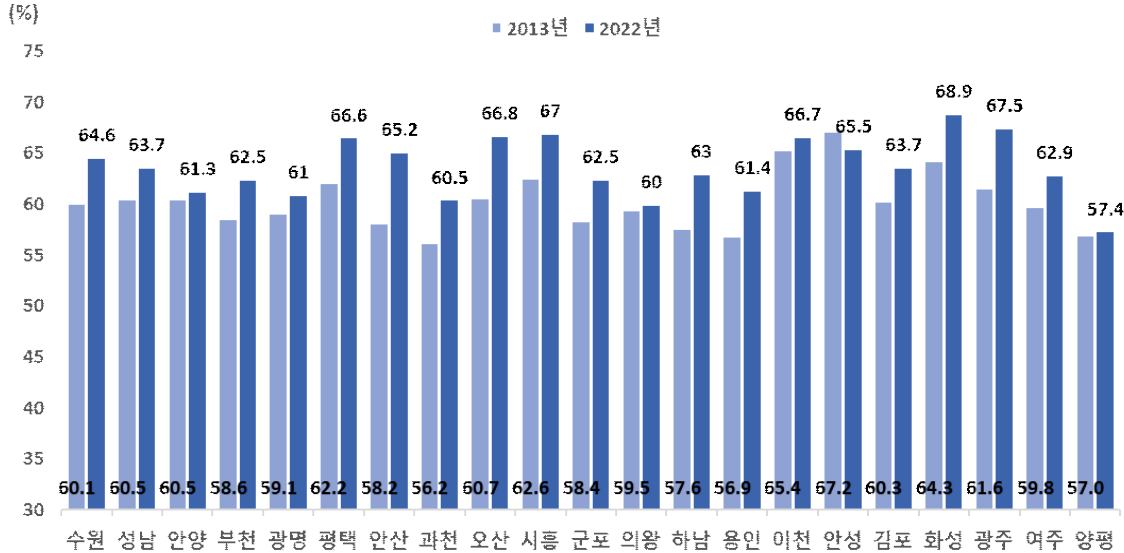
주 :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3. 고용부문

2022년 경기남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경기도 전체의 63.7%보다 높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경기남부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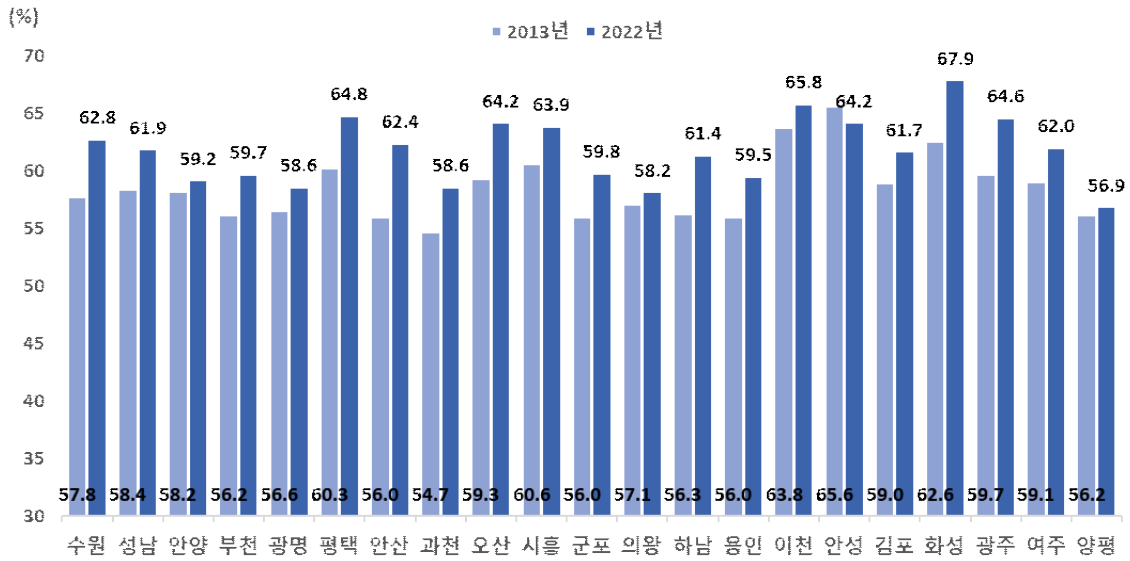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그림 6]을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화성시가 68.9%로 가장 높고, 양평이 57.4%로 가장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을 2013년과 비교하면, 안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안산과 오산이 각각 7.0%p, 6.1%p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15세 이상 성인인구가 증가세인 반면, 안성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15세 이상 성인인구가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7]을 보면, 2022년 기준 고용률은 화성이 67.9%로 가장 높고, 양평이 56.9%로 가장 낮았다. 2013년 고용률과 비교하면, 안성만이 1.4%p 감소하였고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안산과 화성은 각각 6.4%p, 5.3%p로 증가세가 컸다. 안양과 평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률 개선 효과가 나타난 반면, 양평은 성인인구 증가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가 적었던 탓이 크다. 안양과 평택은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인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고용률 현황은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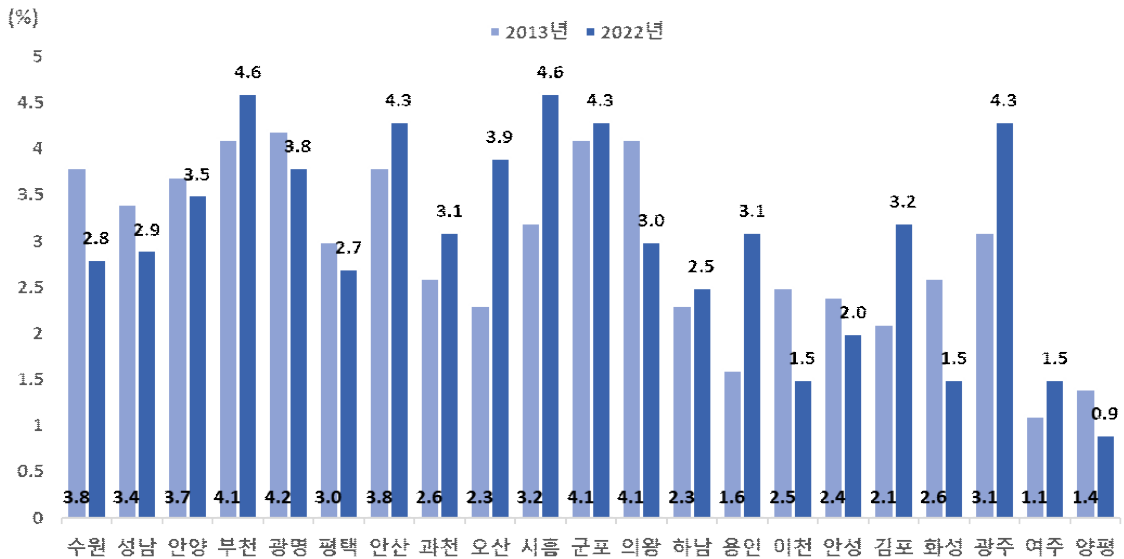
[그림 7] 경기남부 지역별 고용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마지막으로,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실업률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업률은 부천과 시흥이 4.6%로 가장 높았고, 양평이 0.9%로 가장 낮았다. 2013년과 비교하여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평택, 의왕, 이천, 안성, 화성, 양평 등 10개 지역은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그 외 11개 지역은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 비해 실업률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의왕(-1.1%p)과 화성(-1.1%p)이고, 오산(1.6%p)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실업률 현황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경기남부 지역별 실업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4. 투자부문

2022년 경기남부의 자본재 수입액은 390.1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 자본재 수입액(403.1억 달러)의 9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수원(14,689.5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화성(7,253.0백만 달러)과 이천(4,151.9백만 달러), 성남(3,851.3백만 달러)이 따르고 있다. 이들 4개 지역의 자본재 수입액이 경기남부 자본재 수입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평의 2022년 자본재 수입액은 약 12.5백만 달러로, 경기남부에서 가장 적었으며, 의왕(81.7백만 달러), 여주(26.9백만 달러)와 더불어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여 경기북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남부도 자본재 수입액 차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현황 및 추이는 [표 19]와 같다.

[표 19]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자본재 수입액

(단위: 백만\$,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5	1,997.6	802.2	431.9	144.3	145.2	325.8	353.0	90.1	140.2	407.5	317.0
2016	7,263.9	2,177.9	919.1	303.9	155.5	656.1	660.0	55.5	151.0	555.7	373.6
2017	18,965.7	2,466.3	1,169.9	349.6	194.7	915.2	723.0	130.0	210.4	412.1	389.0
2018	14,199.3	2,805.6	887.1	375.0	218.3	1,016.3	622.8	473.7	213.0	410.8	410.4
2019	7,857.6	2,877.9	904.7	384.4	187.3	985.5	473.2	1,002.9	188.3	409.2	431.1
2020	12,391.7	3,062.3	955.6	388.9	236.5	1,053.7	513.2	1,048.9	213.8	422.3	414.6
2021	17,099.7	3,860.3	1,100.0	441.7	273.9	1,191.3	543.4	1,707.9	283.8	432.5	492.7
2022	14,689.5	3,851.3	1,128.9	619.1	264.4	1,361.1	572.1	826.6	323.0	428.8	535.2
CAGR (15~22)	33.0%	25.1%	14.7%	23.1%	8.9%	22.7%	7.1%	37.3%	12.7%	0.7%	7.8%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5	60.0	55.7	732.5	2,946.4	158.2	353.0	1,367.0	137.7	16.4	6.0	
2016	60.5	66.1	2,927.4	3,347.5	198.8	515.5	1,513.6	145.2	12.4	5.5	
2017	79.8	72.7	3,369.8	4,623.4	308.7	345.2	2,701.0	191.3	16.1	4.9	
2018	89.1	90.0	1,194.2	5,765.4	267.3	370.4	5,107.9	225.2	21.1	6.4	
2019	71.3	119.1	1,111.2	2,833.4	202.2	379.1	2,936.5	238.7	23.1	3.4	
2020	95.2	164.1	1,887.7	2,079.3	217.2	311.4	5,609.1	254.5	16.5	7.2	
2021	95.8	194.4	1,355.7	3,573.8	231.7	592.0	8,196.9	258.9	37.7	11.6	
2022	81.7	190.6	1,518.5	4,151.9	222.9	683.4	7,253.0	272.7	26.9	12.5	
CAGR (15~22)	4.5%	19.2%	11.0%	5.0%	5.0%	9.9%	26.9%	10.2%	7.4%	11.1%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다음으로, 2022년 경기남부의 기계류 수입액은 338.8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 기계류 수입액(349.3억 달러)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기계류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8,868.2백만 달러)으로, 수원(8,690.5백만 달러)과 함께 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지역과 더불어 이천(4,609.6백만 달러)도 40억 달러 이상의 높은 기계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 3개 지역이 경기남부 전체 기계류 수입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기계류 수입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양평(13.3백만 달러)으로, 여주(36.1백만 달러), 의왕(47.9백만 달러)과 더불어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도 경기북부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남부의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 현황 및 추이는 [표 20]과 같다.

[표 20] 경기남부 21개 지역별 기계류 수입액

(단위: 백만\$,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2015	775.9	1,548.7	290.8	159.3	119.5	807.9	299.1	56.3	178.2	527.8	119.9
2016	4,075.5	1,823.7	567.0	329.2	129.0	1,747.3	651.1	40.1	210.4	566.8	153.0
2017	11,399.9	1,669.7	713.9	318.1	167.4	1,807.7	762.5	217.6	341.5	453.1	183.2
2018	6,668.5	1,817.5	543.9	334.4	185.2	1,918.8	743.6	670.3	280.9	537.2	246.8
2019	3,967.4	1,633.7	483.3	348.1	161.5	1,778.4	638.0	1,251.6	234.5	536.2	276.8
2020	8,158.5	1,695.8	524.9	296.4	144.8	1,769.6	655.0	1,121.1	274.8	574.9	291.9
2021	11,325.4	2,386.6	685.2	355.9	176.6	1,884.3	709.3	1,861.7	337.8	678.9	339.7
2022	8,690.5	2,303.4	655.1	573.6	192.3	2,014.7	800.0	1,036.3	382.5	717.6	347.2
CAGR (15~22)	41.2%	5.8%	12.3%	20.1%	7.0%	13.9%	15.1%	51.6%	11.5%	4.5%	16.4%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여주	양평	
2015	44.1	47.6	452.8	3,092.2	205.5	448.3	1,735.5	152.6	23.5	6.1	
2016	42.2	45.4	2,318.6	3,410.9	281.7	531.6	2,004.9	141.8	16.0	4.8	
2017	50.4	81.0	2,981.0	4,868.3	382.7	349.2	3,395.0	179.8	22.5	7.5	
2018	53.5	93.7	888.3	5,878.0	351.0	393.7	6,257.7	194.0	31.8	11.0	
2019	39.0	109.3	845.8	3,058.0	280.8	391.7	3,749.7	179.6	30.0	6.9	
2020	54.7	112.4	1,583.7	2,268.0	311.7	333.0	6,669.4	190.8	22.0	10.5	
2021	46.1	141.7	964.8	4,124.7	319.3	640.2	9,520.3	193.5	41.5	13.1	
2022	47.9	138.8	1,122.4	4,609.6	317.4	797.2	8,868.2	215.1	36.1	13.3	
CAGR (15~22)	1.2%	16.5%	13.8%	5.9%	6.4%	8.6%	26.2%	5.0%	6.3%	11.9%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IV.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

1. 인구부문

2022년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358.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43.9만 명)의 26.4%가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를 북부 10개 지역과 남부 2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인구 집중 정도를 보면, 2022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경기북부가 354.75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6.1%를 차지하였고, 경기남부는 1,004.1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73.9%를 차지하여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2.83배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경기북부가 1.3%, 경기남부가 1.2%로, 경기북부가 근소하게 더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동기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주민등록인구 차이는 568만 명에서 649.4만 명으로 연평균 약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인구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북부를 구성하는 10개 지역과 경기남부를 구성하는 21개 지역의 평균적인 주민등록인구는 지역에 따라 약 12만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별 평균 인구 차이도 지속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를 북부 10개 지역과 남부 2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인구 집중 정도는 [표 21]과 같다.

[표 21]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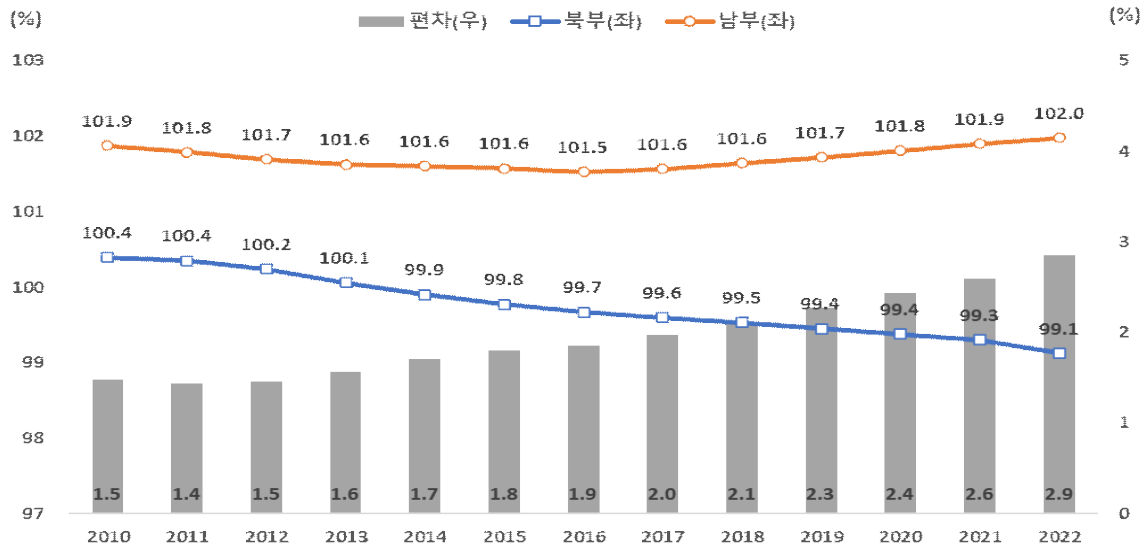
(단위: 만 명, %)

	북부(A)	남부(B)	편차(B-A)	북부 평균(C)	남부 평균(D)	평균 편차(D-C)
2010	305.32	873.35	568.03	30.53	41.59	11.06
2011	310.26	883.48	573.21	31.03	42.07	11.04
2012	314.66	894.67	580.01	31.47	42.60	11.14
2013	319.12	904.35	585.23	31.91	43.06	11.15
2014	323.37	912.41	589.04	32.34	43.45	11.11
2015	329.11	923.15	594.05	32.91	43.96	11.05
2016	333.17	938.50	605.33	33.32	44.69	11.37
2017	335.73	951.66	615.92	33.57	45.32	11.74
2018	339.98	967.73	627.75	34.00	46.08	12.08
2019	344.51	979.46	634.96	34.45	46.64	12.19
2020	349.52	993.18	643.66	34.95	47.29	12.34
2021	353.59	1,002.96	649.37	35.36	47.76	12.40
2022	354.75	1,004.19	649.44	35.48	47.82	12.34
CAGR (10~22)	1.3%	1.2%	1.1%	1.3%	1.2%	0.9%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다음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남녀성비를 보면, 경기북부는 남녀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경기남부의 남녀성비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경기북부는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남부는 남성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두 지역 간 인구구조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남녀성비는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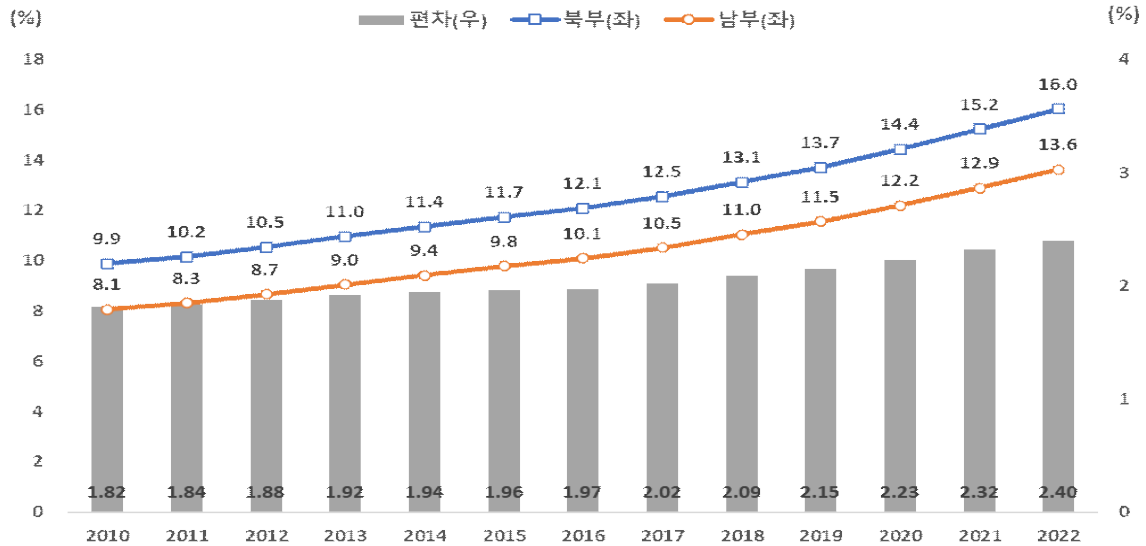
[그림 9]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남녀성비



주 : 남녀성비 = 남성인구 / 여성인구 * 1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한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고령화율을 보면,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은 경기북부가 16.0%, 경기남부가 13.6%로 나타나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2.4%p 크다. 두 지역 모두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두 지역 간 고령화율 편차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고령화율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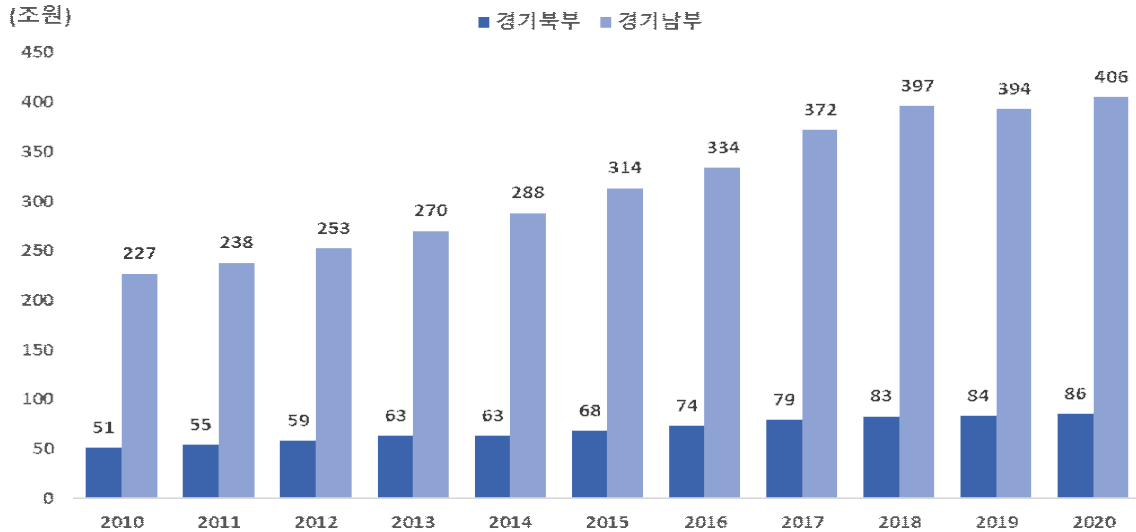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2. 생산부문

2022년 경기도의 GRDP는 491.3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2,161.8조 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GRDP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GRDP는 경기북부가 86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7.4%, 경기남부가 406조 원으로 82.6%를 차지하여 경기남부의 GRDP가 경기북부보다 약 4.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의 GRDP 현황과 추이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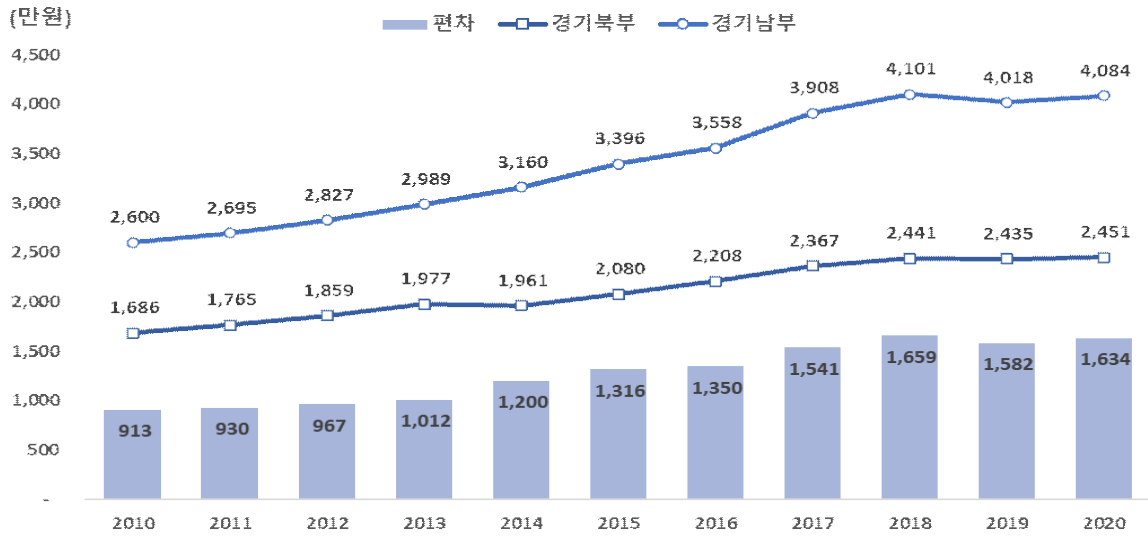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2010년부터 2020년까지 GRDP를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연평균 5.2%, 경기남부는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두 지역의 GRDP 차이는 지속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1인당 GRDP 현황과 추이를 보면, 2020년 기준 1인당 GRDP는 경기북부가 2,451만 원, 경기남부가 4,084만 원으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1.67배에 달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1인당 GRDP는 경기북부는 연평균 3.8%, 경기남부는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1인당 GRDP의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1인당 GRDP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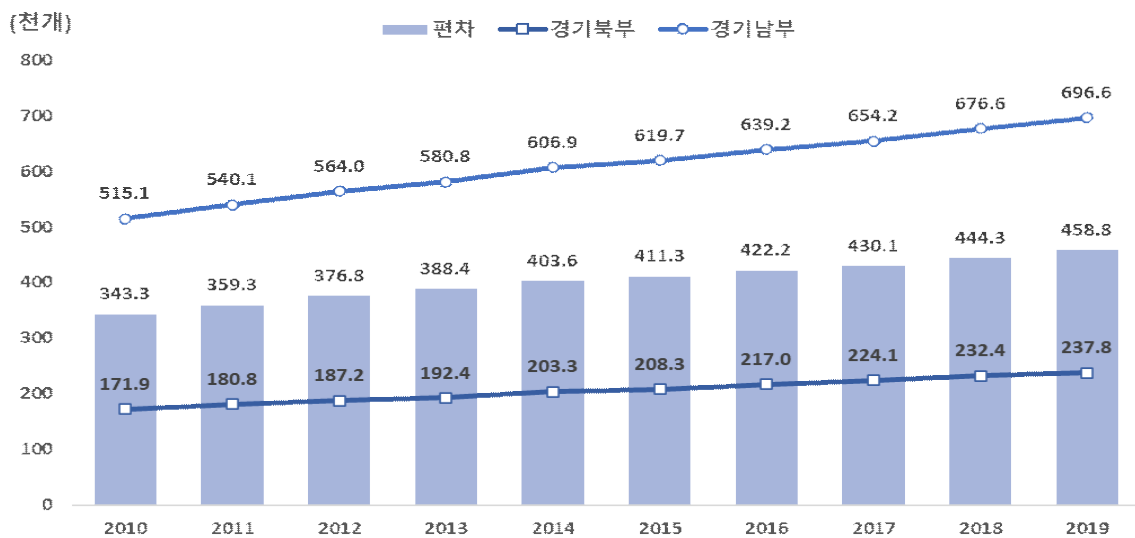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1인당 GRDP



자료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KOSIS

다음으로, 2019년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34.3천 개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사업체 수(4,176.5천 개)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사업체 수는 경기북부가 237.8천 개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의 25.4%를, 경기남부가 696.6천 개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 수의 74.6%를 차지하여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2.93배에 달하였다. 또한, 두 지역 간 사업체 수 차이는 2019년 458.8천 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3%씩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체 수는 경기북부가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경기남부는 연평균 3.4%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그 차이는 소폭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업체 수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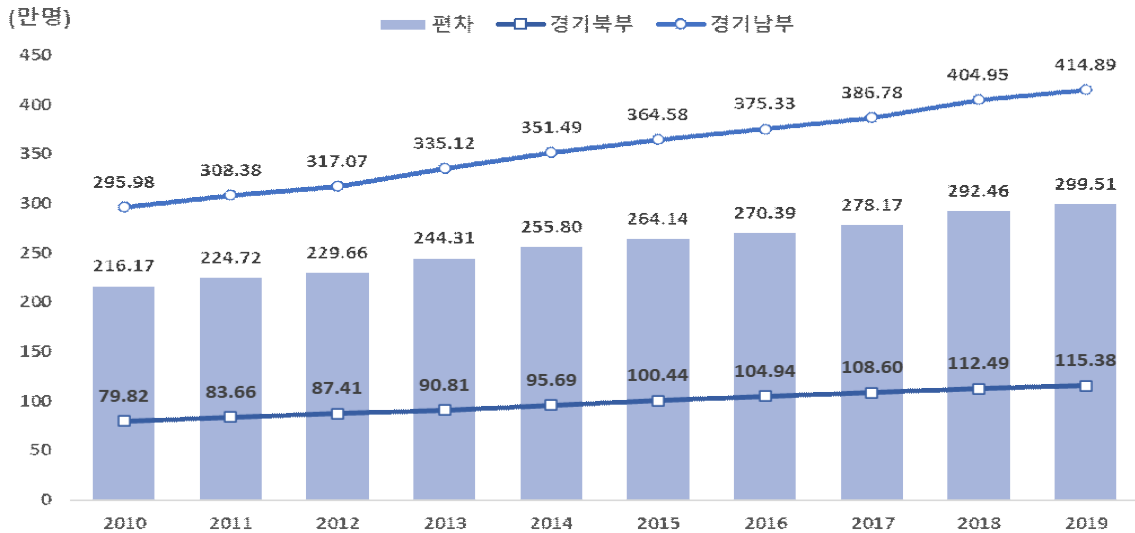
[그림 13]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사업체 수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경기도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종사자 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종사자 수는 경기북부가 115.38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1.8%를, 경기남부는 414.8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의 7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남부의 종사자 수가 경기북부보다 약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두 지역 간 종사자 수의 차이는 299.51만 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7%씩 차이가 커졌다. 그러나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 역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북부는 연평균 4.2%, 경기남부는 연평균 3.8%씩 증가하여 그 차이는 소폭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종사자 수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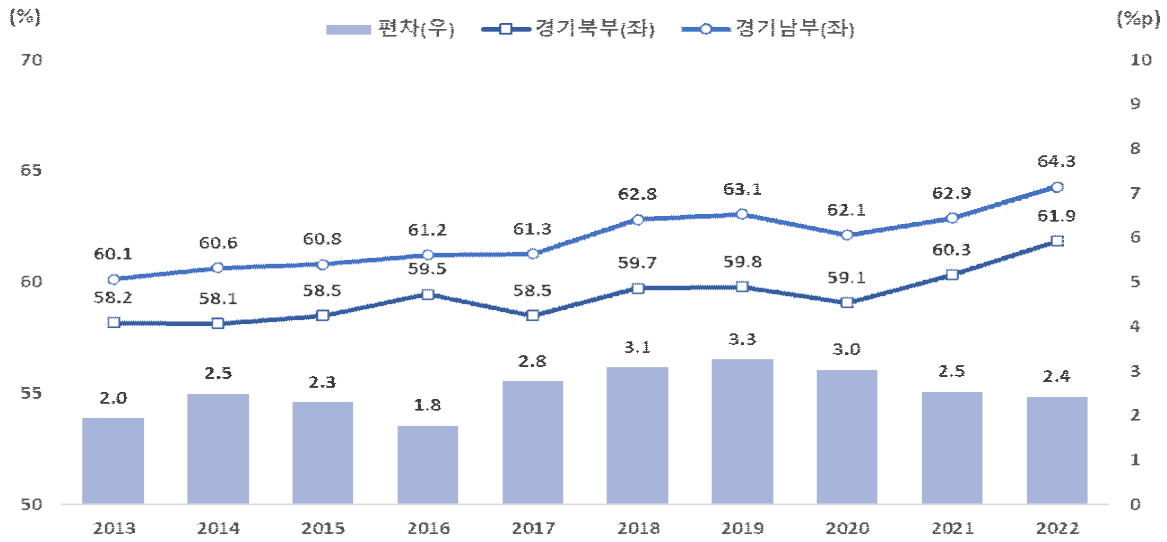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기본통계」, KOSIS

3. 고용부문

2022년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²⁾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인 63.9%보다 0.2%p 낮았다.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경기북부는 61.9%, 경기남부는 64.3%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2.4%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경기북부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2.0%)보다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율(4.4%)이 더 높아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두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5]와 같다.

2) 「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사용한 산출 값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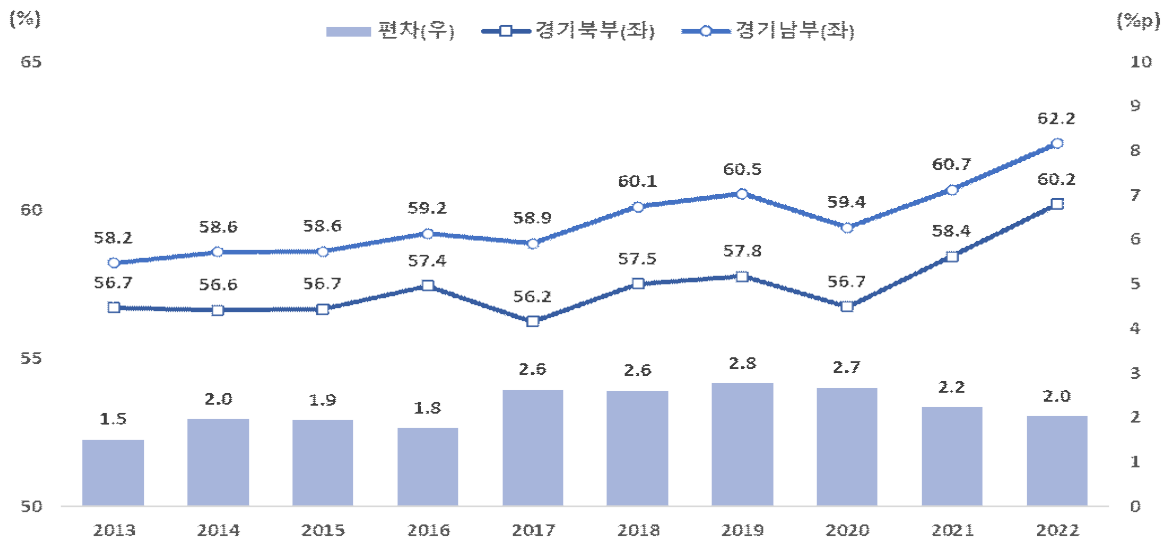
[그림 15]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다음으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고용률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고용률은 경기북부가 60.2%, 경기남부가 62.2%로, 경기남부의 고용률이 경기북부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 북부지역의 15세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2.0%)보다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5.1%)이 훨씬 높아, 2020년 이후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경기남부 또한 취업자 수가 2020년 이후 연평균 4.1% 증가하여 고용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고용률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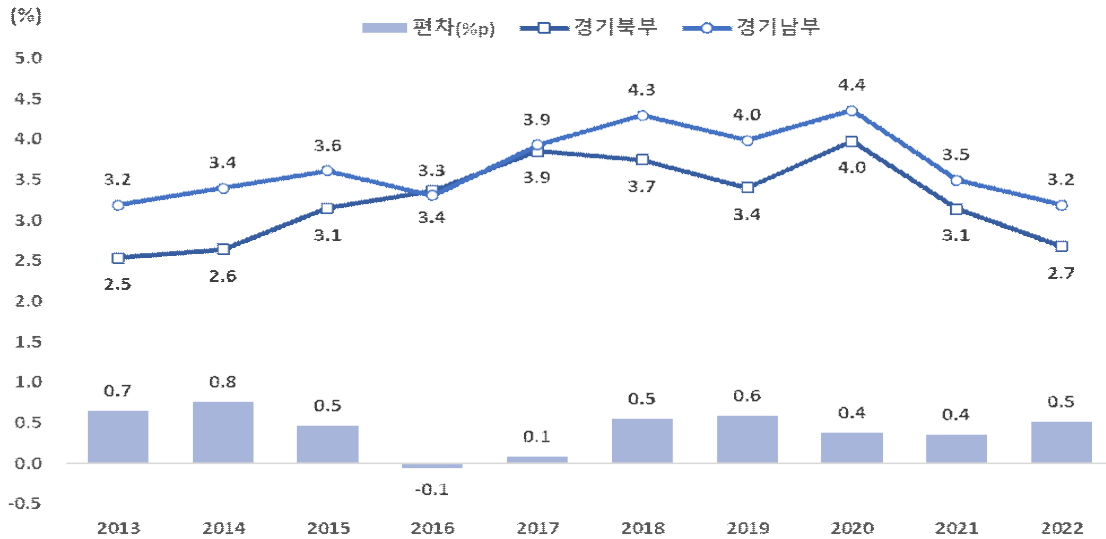
[그림 16]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고용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실업률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실업률은 경기북부가 2.7%, 경기남부가 3.2%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실업률 추이를 보면, 두 지역 모두 202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로,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 하락은 두 지역 모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 반면, 2020년 이후 실업자 수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각각 연평균 14.35%와 11.5% 감소한 결과이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실업률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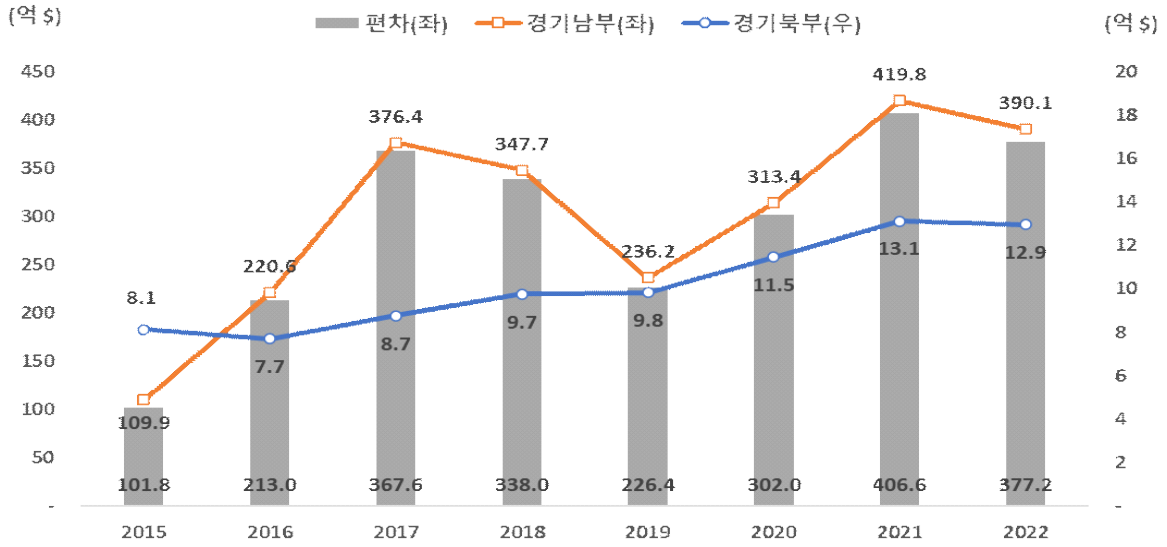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KOSIS

4. 투자부문

2022년 경기도의 자본재 수입액은 403.1억 달러로, 우리나라 자본재 수입액(891억 달러)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자본재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경기북부가 12.9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경기남부가 390.1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의 96.8%를 차지하여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약 30.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자본재 수입액은 경기북부가 연평균 6.9%, 경기남부가 연평균 19.8% 증가하여 두 지역 간 자본재 수입액 차이는 지속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자본재 수입액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자본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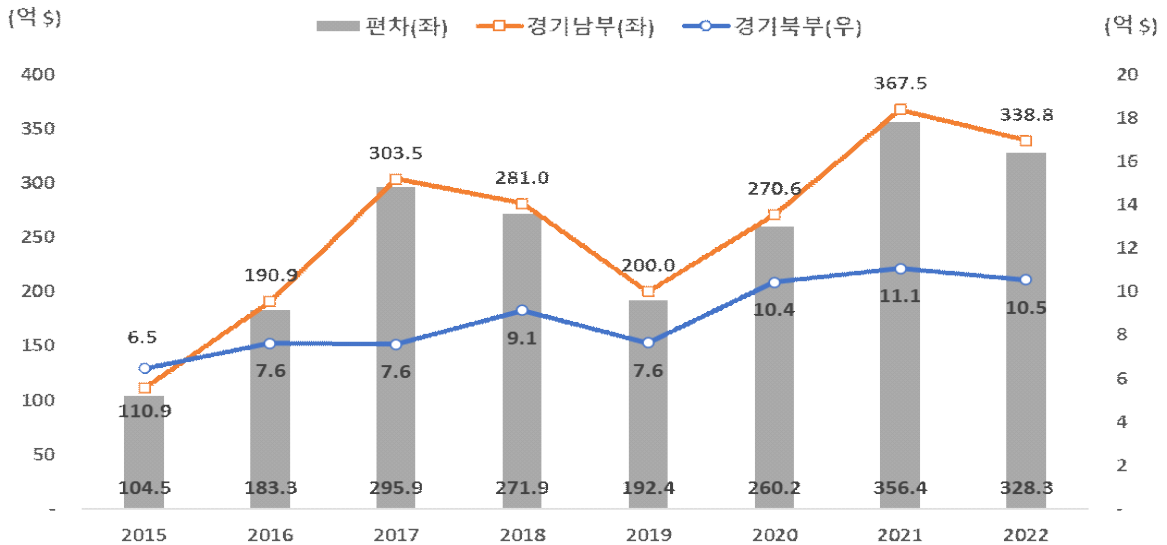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다음으로, 2022년 경기도의 기계류 수입액은 349.3억 달러로, 우리나라 기계류 수입액(886억 달러)의 39.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기계류 수입액 현황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기계류 수입액은 경기북부가 10.5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의 3.0%를, 경기남부가 338.8억 달러로 경기도 전체의 97.0%를 차지하여,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32.16배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계류 수입액은 경기북부가 연평균 7.2%, 경기남부가 연평균 17.3% 증가하여 자본재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 간 기계류 수입액 차이 또한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기계류 수입액 현황 및 추이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기계류 수입액



자료 : 「지자체수출입」, 무역협회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경제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요소인 인구, 생산, 고용,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부문에서는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2.83배 많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0.1%p 높게 나타나 두 지역 간 인구 차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지역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지역의 남녀성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에서는 경기남부의 GRDP가 경기도 GRDP의 82.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경기북부의 4.74배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GRDP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RDP를 비교하면,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1.67배 많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1인당 GRDP 차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경기남부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경기북부의 2.93배와 3.63배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차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문에서는 경기남부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기북부보다 2.4%p 높다. 다만, 경기북부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세로 두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고용률은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2.0%p 높다. 두 지역 모두 2020년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0.5%p 높는데, 두 지역 모두 2020년 이후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부문을 보면, 자본재 수입액은 경기남부가 경기도 전체의 96.8%, 경기북부의 30.13배를 기록하여 경기남부 집중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두 지역 간 자본재 수입액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류 수입은 경기남부가 경기도 전체의 97%를 차지하여 자본재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 집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두 지역 간 자본재 수입액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 인구수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기북부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 고령화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생산부문을 보면, GRDP와 1인당 GRDP 등에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차이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경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적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에 적합한 산업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산업벨트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투자부문에서는 경기도 자본재 수입액의 96.8%가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벤처투자기관 설립 등 경기북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기북부-경기남부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규제 완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 기업유치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의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성장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경제 현황 분석과 기초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격차 관련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Regional Economic Comparison of Northern 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and Major Implications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

김용덕·김은지

GYRI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우)10393